

Sulwhasoo

Vol.57 July/August 2013



여름의 정원을 엿보다

차가운 흙으로 빚은 백자에 출세와 번창을 기원하는 어류, 장생을 기원하는 포도 덩굴, 부부화합을 상징하는 나비 등을 그려 뜨거운 불에 구워 완성한 백자에서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여름의 정원이 엿보인다. 여름의 청아한 멋이 백자 안에서 피어나고, 자연에 기대 회복을 빌던 사람의 마음까지 깃드니 백자가 담은 것은 여름그 이상의 의미다.

붉은 진사와 푸른 청화로 채색한 나비와 곤충이 어우러진 백화청화나비문병, 어류의 생동감이 담긴 달항아리는 청화백자어문호.



穿

雪花秀

시원함을 뽐낸다



여름을 다독이다
여름날 외출 후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을 달래고, 심신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만 시원한 기운을 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피부도 시원하게 진정시켜줄 무엇인가가 간절히 필요한 계절이지요. 오늘 밤, 청운수당팩을 곁에 두세요. 피부에 도포하는 즉시 청량감이 느껴지고, 낮 동안 뜨거운 외부 열기에 지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줍니다. 바르고 잠을 청하면 은은한 향이 전해집니다.

손그림과 손글씨 이규복

청매실 성분이 함유된 한방 수당팩, 청운수당팩은 빛과 열 등 외부 자극에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다스려주며 풍부한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생동감을 전한다.



청운수당팩





여름 향이 하늘까지 달네

옛 선비들은 좋은 향나무를 발견하면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싶을 때 언제나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심재(心材)를 잘라 향함에 넣어 미리 보관해 두었다. 그러니 향함이란, 정신을 맑게 하고자 했던 옛사람의 심성을 담은 함이었던 셈이다. 정신마저 혼탁해지는 무더운 여름 한낮, 뚜껑을 살짝 열어 본 향함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기고, 마당의 복숭아나무에 달린 소담한 열매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나면 어느새 더위는 물러나고 그 향기만 하늘까지 퍼지지 않겠는가.

우리네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들 진사와 청화로 채색한 백자향갑과, 버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연적을 복숭아 모양으로 빚은 복숭아 연적.



시원한바람을일으키라

제아무리 피약벌이 내리찍는 한낮이라도 나무 그늘 밑에 숨으면 내게 꼭 필요한 만큼의 시원함을 선사해주는 것이 여름이다. 여름이면 하늘 높이 치솟아 하늘의 바람을 일으키는 대나무의 청정한 바람과, 하얀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이 예까지 전해진다.

빛과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한방 데이크림 소선편 크림. 표지의 팔각연꽃어문호를 비롯해 소개된 모든 백자는 전통 방식 그대로 도자를 빚는 한도 서광수 명장(대한민국 명장 14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사기장)의 작품으로 한도요에서 만날 수 있으며, 뒤표지의 도자로 빚은 배는 김익영 작품으로 우일요. 낙죽 공예로 기품을 더한 부채. 낙죽백선(烙竹白扇)은 김동식 선자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함죽선 선자장)의 작품이다.



하늘의 빛깔을 짓다, 천청색

For our Korean ancestors, blue was the color that symbolized women. As its subtle light is fine, brightening, and clarifying, would it not be the best color for women? Among the Five Colors, the women particularly loved blue, especially sky blue, and often wore clothes in that color. There is a record that Princess Deogwon, the third daughter of King Sunjo and the last princess of Joseon, enjoyed wearing sky blue clothes. Sky blue literally means “the blue color of the sky.” Was its fine hue the only reason that it symbolized women? Didn’t it also represent the virtue of women, who served their husbands as if they were the sky?

Our Korean ancestors also believed that blue is the color of hope and youth. As a light-green sprout becomes green and eventually blue, becoming “nature” itself, blue represented the energy of the trees among the Five Elements, and symbolized young and ambitious hope, like the tree that grows towards the sky. This is why the hopes of young men with big dreams were called “dreams of blue clouds,” and why plans for the future were called “blueprints.” How about going near the sky blue color and taking a moment to envision your blue dreams this summer?

우리 선조들에게 푸른색은 여자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그 은은한 빛이 고와 자태를 밝히고, 안색을 맑게 하니 여성에게 이보다 어울리는 빛깔이 있을까. 오방색의 체계에서 청색, 그중 천청색(天靑色)은 여성들이 지극히 사랑하여 의복으로 많이 지었던 색인데,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던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德溫公主)가 천청색의 당의를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자 풀이대로 천청색은 ‘하늘의 푸른 빛깔’이다. 여자의 상징으로 여겨진 푸른색이 비단, 색이 고와서였을까. 낭군을 하늘로 알고 받들던 여인들에게 하늘을 닮은 푸른색은 곁에 두고 가꿔야 할 여인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외에도 우리 선조들은 푸른색을 ‘희망’과 ‘젊음’이라 여겼다. 새싹이 돋아 연두에서 초록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푸른빛으로 성장해 ‘자연’ 그 자체가 되듯 푸른색은 오행 중 목(木)의 기운에 속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젊고 패기 있는 희망을 상징했다. 그래서 예부터 출세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희망을 일컬어 ‘청운(靑雲)의 꿈’이라 했으며 앞날을 계획함을 두고 ‘청사진(靑寫眞)’이라 하지 않았던가. 무더운 여름, 하늘을 닮은 천청색을 가까이 두고, 잠시라도 푸른 꿈 지어봄이 어떨까.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한도요(031-632-7105), 김동식 선자장(010-8640-4191), 우일요(02-763-2562)





30

58

76

70

84

Sulwhasoo

July/August 2013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미학자를 매료하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바라본 한국의 美	08
집안 단장	푸른빛, 시원함을 들이다	10
몸단장	정교한 아름다움	12
한국 문화 읽기	모시 Ramie Fabric	14
피부 섬기기	밤과 낮, 시원하게 살피다	16
옛 삶을 돌아보다	조선, 사유와 철학으로 집을 짓다	20
격조 높은 삶	여름, 자연에서 놀다	26
여름에 놀다	여름! 물맞이하라	28
어우러지다	놀이로 거듭나라	30
살피보다	그릇에 담긴 지혜, 여름 음식	38
세밀하게 보다	노거목이 둘러싼 숲에 천심(天心)이 담기다	40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따뜻한 손길을 건네다	48
월드 헤리티지	작품으로 불리는 등나무 의자, 메종 드러커(Maison Drucker)	54
아트 클래스	디지털 영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58
작가를 만나다	선(緜)의 작가 정광호	64
설화보감	청매실, 불기운을 물리치고 독을 풀어내라	70
설화수의 세계	물 속에 맑은 아침 찾아든다	76
국악기행	불모지라서 캐널 보석이 많은 강원의 소리	80
설록다원	차 한 잔에 담긴 검소함	84
미색보감	지친 피부에 선사하는 휴식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i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s design has color aesthetics based on the Five Colors.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 July/Aug. 2013 Issue features the clear color of blue and white porcelain, which was applied to RENODIGM EX DUAL-CARE CREAM. Blue and white porcelain is highly pure white with patterns drawn in the cobalt pigments for dignity and coolness. Its bamboo, lotus flower, and peach patterns represent summer and the color of the summer sky.

설화수의 디자인에는 오방색에 기초한 색채미학이 들어 있다. 2013년 7/8월호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소선보크림의 디자인에 적용된 푸른색을 청화백자의 맑은 빛깔에서 찾아냈다. 순도 높은 백자에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려 넣어 기품과 시원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청화백자에 그려진 대나무, 연꽃, 복숭아 등에 하늘의 빛깔이 담긴 여름이 오롯이 담겨 있다.

●발행인·사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 (주)인팩(인팩·서울시 중구 창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태윤희 02)709-5525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신정희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3년 7월 1일(통권 제57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산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사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덕대왕신종
© 국립경주박물관

야나기 무네요시가 바라본 한국의 美

일본인 미술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유종렬·柳宗悅)는 조선미술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미술 등 동양 미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동양의 미술문화를 연구해 지식을 쌓으면서 미술사가로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미술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하게 만들 정도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모란 무늬의 향아리 한 점을 기증받았는데, 이후 조각가 아사카와 노리타나로부터 도자기를 선물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조선의 예술과 문화에 깊이 심취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미술을 바라보는 야나기의 이런 관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미술사가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인간적 감성을 우선한 관점이었다. 야나기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조선의 도자기를 바라보며 “나는 나의 책상 위에 있는 자기(磁器)를 볼 때마다 쓸쓸한 눈물이 그 조용한 유약 속에 감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조선에 대한 동정 어린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이런 연민의 시각에서 당시 조선의 미술을 규정하려고 했다.

이처럼 조선의 미술품들을 개인적인 연민의 심경으로 바라보았던 야나기도 스물일곱 살부터 사십 대 중반까지 무려 20회 이상의 조선 답사를 통해 가구, 회화, 자수, 도자기 등 다양한 조선의 미술품들을 접하면서 점차 조선의 미술이 깊이 있고 수준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조선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일본의 탄압에 의해 소실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1924년 경복궁 내 집경당(緝敬堂)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네 살 때의 일이다. 이 일로 그는 조선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조선총독부와의 마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무렵 야나기는 서울, 경주 등 미술 문화가 잘 발달된 곳뿐만 아니라 부산, 개성, 강진, 공주, 여주 등 지방의 공예품 생산지와 도자기를 굽는 가마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선 사람들로 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았던 금속공예, 목공예, 회화, 자수 등 다양한 조선의 미술품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시대의 도자기에 정(淸)과 화(和)가 흐르는 미적인 신비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야나기는 당시 크게 상처를 받은 한국 미술 문화의 자존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광화문을 일본 정부가 철거하려고 했을 때 당시 일본 잡지 <가이조(改造)>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여론을 일으켜 제거를 면하게 한 일이다. 이처럼 야나기 무네요시는 당시 깨어 있는 문화 이론가이자 미술사가였다. 그럼에도 야나기의 일부분만을 언급하며 마치 한국 미술에 피해를 준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미술품을 보는 그의 마음은 찬탄과 경이였다. 성덕대왕 신종을 보며 동양의 어떠한 범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이라고 극찬을 하였으며, 경주 석굴암에 대해서는 40여 개의 불상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놀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석굴암 조상(彫像)의 미를 꾸미고 있는 것이 조선의 아름다운 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야나기는 조선의 미술, 비애를 수반한 부드러운 선에서 비롯된 선의 미술로 보면서도 한 사람의 미술 전문가로서 자신이 보고 느끼는 조선의 여러 미술들을 동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미술이라며 극찬했다. 조선은 사랑한 그에게 조선의 미술품들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존재였던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정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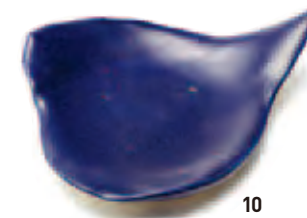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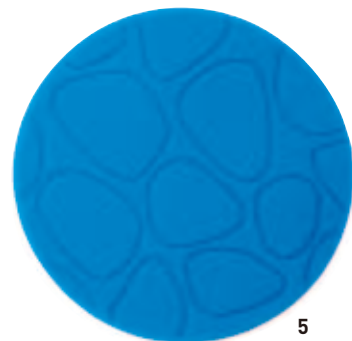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 도쿄제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 도자기에 매료되어 20차례 넘게 한국을 방문해 수백여 점의 공예품을 수집했다. 1924년에는 경복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한국의 미술을 알린 그에게, 한국 정부는 1984년 외국인 최초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푸른빛 시원함을 들이다

여름철 집 안의 무더위를 물리치고 시원한 감촉만 남겨줄 푸른 빛깔의 물건들을 모았다.



우리 선조들은 '쪽빛'을 특히 애중하였다. '쪽빛 바다', '쪽빛 하늘'같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짙은 푸른빛인 쪽빛에 빗대어 표현하고는 했다. 쪽빛은 한자로 남(藍)색이지만 붉은빛이 약간 섞인 색으로 페인트처럼 어느 한 가지 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색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 색인 쪽빛에서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면 어떨까. 굳이 멀리 바다까지 찾지 않아도 집 안에 바다와 푸른 하늘을 들인 듯 시원한 감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식탁 위에 파란색 접시를 포인트로 사용하거나 파란색 젓가락, 오브제 등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파란색 화병을 놓고 꽃을 꽂아보는 것도 한 방법. 보기만 해도 시원한 빛깔에 여름철 무더위도 그 위용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무겐인터내셔널(02-706-0350), 말리(바다디자인)(02-720-8028), 토요(02-722-1260), 어바웃어(02-3445-3817), 이목동그릇(044-862-5414), 하나아트갤러리(02-736-6550), 이세용도예(02-739-7555),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자연공감도(02-762-5431), 스페이스휴(02-2202-0425)



8

1 파란 꽃잎이 겹겹이 새겨진 초는 어바웃어, 2 상감기법으로 새긴 푸른 줄무늬 찬기는 전상우 작품으로 자연공감도, 3 청자빛 사과 모양 오브제는 이세용 작품으로 이세용도예, 4 심플한 디자인의 캔들 홀더는 무겐인터내셔널, 5 블루 컬러가 시원해 보이는 코스터는 무겐인터내셔널, 6 모던한 디자인의 접시와 볼은 루이제 아델보르그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무겐인터내셔널, 7 계란을 올려놓는 플레이트는 무겐인터내셔널.

8 백토로 구운 백자에 코발트 터치가 신선한 주전자와 찻잔 세트, 사발, 접시들은 모두 이경한 작가의 작품으로 이목동그릇, 찻잔이 올려진 사각 접시는 바다디자인 작품으로 말리, 9 정교하게 새겨진 새 모양의 수저받침은 허상욱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 10 꽃잎 모양이 독특한 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11 세라믹 오브제 병은 말리, 12 천연 오일로 페인팅이 된 청색 스탠드는 스페이스휴, 13 두 송이의 붓꽃이 그려진 그림은 김정선 작품으로 하나아트갤러리, 14 차나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커피드리퍼 세트는 이목동그릇, 15 파란색으로 장식된 젓가락은 토요.



정교한 아름다움

멋을 아는 여인들의 손가락 위에서 반짝거리는 은반지나 귀에서
찰랑거리는 귀고리는 여름철에 더욱 그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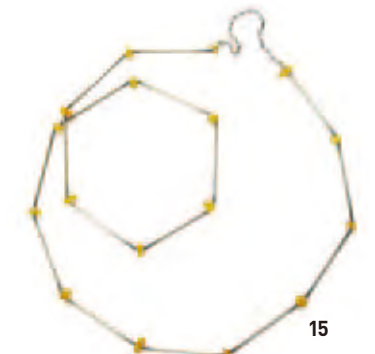


1 권위의 상징인 용 문양이 새겨진 은장도는 무형문화재 박종근의 작품으로 광양은장도. 2 은으로 만들어진 빗에 호박으로 장식한 브로치는 아원공방. 3 담수 진주로 장식한 귀고리는 스페이스두루. 4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듯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 브로치는 리은공방. 5 향수를 펜던트에 넣어 휴대할 수 있는 장신구는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6 은으로 만든 꽃 안에 자수정 꽃으로 포인트를 준 브로치는 나락실. 7 옥으로 만든 꽃이 장식된 은 브로치는 무형문화재 엄익평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아무리 멋스러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다 할지라도 장신구가 빠지면 섭섭하다. 옛 여인들의 옷차림과 머리 장신구 등을 살펴보면 정교하고 예쁜 디테일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반지 역시 애장품이었는데 쌍으로 된 쌍가락지는 주로 결혼한 부인들이 끼었다. 특히 금(金)은 조선시대 왕실의 장신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1769년 영조 때에 순금을 도금으로 대체하라는 왕명이 내려진 후에는 대부분 은으로 도금해 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은(銀)은 옥과 함께 옛 아녀자들이 더운 계절에 맞춤으로 연출하는 장신구 재료로 종종 쓰였다.

현대에도 은은 여전히 인기 아이템이다. 미묘한 의상에 시원해 보이는 액세서리로 멋을 내고 싶다면 은 장신구를 추천한다. 섬세하게 세공된 반지나 귀고리에 새겨진 문양들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걸을 때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주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아원공방(02-735-3482), 광양은장도(02-723-6007), 리은공방(02-722-2789), 스페이스두루(02-783-1354),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나락실(02-723-9426), 아신(02-734-4900), 가원공방(02-2278-0205)



8 대나무를 모티브로 조각된 은비녀, 장수와 재복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의 은 쌍가락지는 아원공방. 9 꽃 모양이 멋스러운 은 브로치는 스페이스두루. 10 동물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팔찌는 리은공방. 11 옥으로 장식된 꽃잎 브로치는 아신. 12 복과 길함의 상징인 봉황이 장식된 반지는 김학중의 작품으로 아원공방. 13 초록색 나뭇잎이 시원해 보이는 은 팔찌는 리은공방. 14 물결처럼 유려한 곡선의 귀고리는 김준희의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5 은줄에 상큼한 노란색의 호박을 엮어 만든 목걸이는 나락실.

모시 Ramie Fabric

올 사이로 넘나드는 시원한 바람을 닮은 옷감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복날이면 시원한 모시 적삼을 만들어 입고는 했다. 올 사이로 시원하게 바람이 통해 땀이 차지 않고 몸에 들러붙지 않는 모시는 까슬한 촉감마저 더해져 여름이면 선조들이 애증하던 옷감이었다.

모시는 백제시대에 처음 옷감으로 만들어진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다. 신라 경문왕 때에는 모시를 해외로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시대에는 농가의 중요한 부업이 되어 화폐를 대신할 정도의 가치를 자랑했다. 특히 충남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한산 모시'는 그 마무리가 섬세하고 청아한 멋을 지녀 모시 중 으뜸으로 친다.

모시는 만드는 방법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옛 여인의 고된 노동이 옷이 담겨 있기에 모시 한 필을 만드는 과정은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에 비교되기도 한다. 먼저 모시풀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태모시를 만든 다음 모시 섬유를 얇게 쪼갬다. 모시짜기가 끝나면 '편지'라는 틀에 걸어놓고 한 올씩 입술의 침을 발라 이어 붙인다. 이후 틀에 매어 한 필의 모시를 짤 만큼의 실을 감고 모시짜기에 앞서 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풀을 먹인다. 이때 더위에도 불구하고 왕겉볼로 풀을 말리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 베틀 앞에 앉아 모시를 짤 때도 전신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에도 날씨가 선선하고 건조하면 바스러지는 까다로운 옷감이라 삼복에도 덥고 습한 움막을 만들어 땀을 쏟으며 짜야 했으니, 산고와 비교될 만하지 않은가.

하얀 모시가 귀히 대접받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비 정신이 깃든 옷감이기 때문이다. 땀뻑하게 풀을 먹인 하얀 모시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선비의 모습은 깨끗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우아하고 지조 있는 모습이며, 마치 한 마리의 하얀 학을 보는 듯 그 안에는 기품이 깃들여 있다. 선비들의 하얀 모시 옷 한 벌에 기품 있는 정신까지 풍겨져 나오는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여인들의 성스러운 노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 곳 박해리공방(02-542-4692), 마루공방(02-324-6123)

Our Korean ancestors made Moshi (ramie fabric) Jeoksam (traditional Korean summer jacket) to stay cool in summer. It was the type of fabric that our Korean ancestors loved to wear in summer. Ramie fabric was first used for clothes in the

Baekje Empire, but gained recognition in the Joseon Dynasty when it was served to the king. There is a record that it was exported abroad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mun of Shilla and became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for farm households, with its value equivalent to currency in the Goryeo Dynasty. Hansan Ramie, which was produced in Seochon-gun, Chungcheongnam-do, is particularly considered the best Ramie fabric because it boasts of a delicate finish and elegant beauty.

Ramie fabric is rather hard to make. First, the outer peel of the ramie plant is peeled off to make Taemosh (thick raw ramie thread), which is used to break down the ramie fiber into thin strands. After this process of splitting thick raw ramie threads, they are hung on a frame called Jjeonji and interconnected using the saliva. Then the amount of thread needed to make a full piece of fabric is rolled and treated with starch to make it softer before it is loomed. The loom-ing process also requires the full strength of the body. Because this particular fabric becomes brittle when it is cool and dry, the women had to make their hut hot and humid so that they would sweat while making the fabric. Isn't this process as painful as childbirth? Another reason why white ramie fabric is considered valuable is because it conveys the spirit of nobility. White ramie pants and tops, which resemble a white crane and are starched and ironed to flatten them, symbolize not stubbornness but the integrity, elegance and fidelity of nobility The nobility could display their spirit of dignity only by wearing a pair of white ramie clothes, thanks to the sacred labor of the women who made them.

밤과 낮, 시원하게 살피다

뜨거워진 기온만큼 피부 온도도 올라가는 여름의 정점. 외부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다독여 피부의 젊음과 생기를 다스려야 할 때다. 낮에는 소선보크림으로 밤에는 청윤수딩팩으로 꼼꼼히 다스려보자.



여름휴가를 쯤 바캉스를 다녀온 뒤 강렬한 태양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부 변화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태양의 열기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름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한낱 피약별 아래 서 있다 보면 얼굴이 후끈거리며, 이내 붉어지고 그러다 피부가 본디 약한 사람은 간혹 따끔거리기도 한다.

피부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붉은기가 증가하고, 모공이 늘어지며,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저하되고, 건조해지는 등 피부 노화를 부르는 총체적인 경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태양 앞에 나서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라는 충고는 몇 번을 새겨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비단 자외선의 열기만 피부를 나이 들게 하는 것일까.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 고데기의 열기 그리고 부엌에서 이열치열 여름 보양식을 만들다가도 금세 얼굴이 건조해지고, 붉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이렇듯 우리의 생활 곳곳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는 열이 있기에 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열이 주는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소선보크림에 담겨 있다. ‘피부를 보호해주고 식혀주는 하얀 부채’라는 의미를 지닌 소선보(素扇保)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소선보크림은 자외선 차단(TPF 40/SPF 30/PA++)과 주름개선 기능성 크림으로 빛과 적외선 등의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한방 데이크림이다. 소선보크림에 함유된 편백나무추출물(편백다당체 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며 홍삼 사포닌 성분이 주름을 개선해 피부의 힘을 키워준다. 소선보크림은 주름 개선에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 낮 시간에 최적화

낮 시간의 빛과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개선해 피부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한방 데이크림. 소선보 은은한 빛깔의 종지는 바다디자인이 만든 것으로 말리에서, 이종남 작가의 생쪽염 옥색모시는 이종남 천연염색연구소에서 만날 수 있다.

There must have been times when you were frustrated by the change in your skin after it was defenselessly exposed to intense sunlight during your summer vacation. Needless to say, the strong impact of the heat of sunlight on your skin can easily be felt in summer. If you stand under the scorching sunlight in the middle of the day, your face will burn up, redden and even sting if it is sensitive. Then if it is exposed to heat for a long time, it will become even redder and will show sagging pores, wrinkles, loss of resilience and dryness. All these symptoms lead to aging. Therefore, it is never too much to say you must wear sunscreen before going out in summer.

However, is the heat of UV rays the only thing that makes your skin age? Haven't you ever felt your skin become dry and red while you are drying your hair with a blow dryer, curling it with a curling iron or preparing a meal in the kitchen?

You cannot avoid all sources of heat that stimulate your skin daily, but RENODIGM EX DUAL-CARE CREAM has the secret to protecting your skin from the stimulation of heat. As you can gather from its name, which means ‘the white fan that protects and cools the skin,’ RENODIGM EX DUAL-CARE CREAM is a day cream that functions as a sunscreen (TPF 40/SPF 30/PA++) and wrinkle correcter. It is formulated with traditional Korean herbs to protect your skin from light and heat and keep it younger. The Chamaecyparis obtusa extracts (polysaccharides) in RENODIGM EX DUAL-CARE CREAM comfortably soothes your skin, while red ginseng saponin corrects wrinkles to leave it stronger. RENODIGM EX DUAL-CARE CREAM adds sunscreen function to



빛과 열 등 외부 자극을 받아 지친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는 한방 청운수당팩. 옥으로 만든 수직과 분합 등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옥장 엄익형의 작품으로 가원공방에서 만날 수 있다.

된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매일 피부를 코팅한듯 탄탄하게 지켜준다. 올해 출시된 소선보크림은 위생적인 펌핑 용기로 바뀌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데이 전용 크림답게 가벼운 텍스처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소선보크림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상하는 것을 예방했다면, 이번에는 사후 관리를 체크해볼 차례다. 청운수당팩은 도포 즉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낮 동안 더위에 지친 피부를 시원하게 감싸 진정시켜준다.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줄 뿐 아니라, 모공을 케어하며 기분 좋은 탄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사용법도 간편하다. 밤에 잠들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듬뿍 바르고 잔 뒤 다음 날 아침 미온수로 세안하면 된다. 함유된 솔잎 등 에센셜 오일의 향기까지도 은은하다. 청운수당팩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야외 활동 후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도톰하게 펴 발라 10분 이상 흡수시킨 뒤 미온수 등으로 씻어내면 된다. 피부를 안정시켜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캉스 후 자극을 받은 어깨와 목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의 예민함을 가라앉히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니 휴가철에 꼭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뜨거운 열로부터 피할 수 없는 여름, 낮에는 소선보크림으로 보호하고 밤에는 청운수당팩으로 다스려 젊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로 가꿔보자.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05), 멀리 (02-720-8028), 이종남 천연염색연구소(02-762-5310)

wrinkle correction as the anti-aging cream optimized for daytime and firmly protects your skin every day.

The new and improved RENODIGM EX DUAL-CARE CREAM comes in a clean container with a pump for your convenience. Another reason why RENODIGM EX DUAL-CARE CREAM is so popular is because it has a light texture that is ideal for daytime use. If you are already preventing heat damage to your skin, it is time to check your after-care routine. TRUFRESH SOOTHING MASK is an instantly cooling product that soothes your skin when it is tired from the heat of the day. Formulated to protect your skin from heat stimulation, this product not only soothes your skin with suppleness, but it also gives pleasant plumpness by tightening the pores. It is also easy to use. Apply an ample amount of it as the last step of your basic skincare before you sleep at night, and rinse it off with lukewarm water in the morning. The fragrance of essential oil, including the scent of pine needles, helps you get a good night's sleep. TRUFRESH SOOTHING MASK can also be used during the day. If you want to soothe your tired skin after an outdoor activity, apply an ample amount of this mask on your skin, let it penetrate for more than 10 minutes and rinse it off with lukewarm water. It will soothe your skin and enhance the penetration of other skincare products. You can also use it on your shoulders and neck to reduce the sensitivity of your skin in those areas and to hydrate irritated skin there, so don't forget to pack it for your vacation this summer. You cannot run from the heat of summer, so protect your skin with RENODIGM EX DUAL-CARE CREAM in the day and soothe it with TRUFRESH SOOTHING MASK at night for young and healthy skin.



조선, 사유와 철학으로 집을 짓다

집은 공간의 역사다. 아니, 이 말은 틀렸다. 집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온갖 요소들로 완성된 삶의 역사다. 밥을 먹고 아이를 낳고, 중국엔 임종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다. 의식주를 말할 때 자주 따라붙는 '짓다'는 이제 그 뜻이 퇴색되었다. 이제는 일일이 집에서 옷을 짓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집 또한 기성복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옛 집은 지금의 집과 격이 달랐다. 무엇이, 왜 다른 것일까?



건축주와 주고받은 e-메일을 모아 엮은 책 <제가 살고 싶은 집은...>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건축주에게 던진 건축가 이일훈의 첫 질문은 이랬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산을 먼저 묻지 않은 것도 신선하지만, 이 질문엔 집을 대하는 우리의 전통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서가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집을 사면서 평수와 학군, 재테크를 고민하는 후손들과 달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심했다. 문 하나를 내는 일에도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투영하고자 했던 것이 조선의 사대부들, 선비였다. 선비들에게 건축은 다른 방식의 글쓰기였다. 짓다가 아니라 ‘쓰기’였던 것이다.

지금과 대동소이하게 집은 주인의 부와 권력을 드러낸다. 우리는 옛 집하면 궁궐이나 고관대작 명문가의 기와집을 연상한다.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건축이란 대개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울릉도 투막집이나 오대산 너와집, 제주도 띠집까지 그 지역의 흙과 초목을 재료로 태어난 집의 형태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그리고 다수의 민초들은 그런 집에서 고된 삶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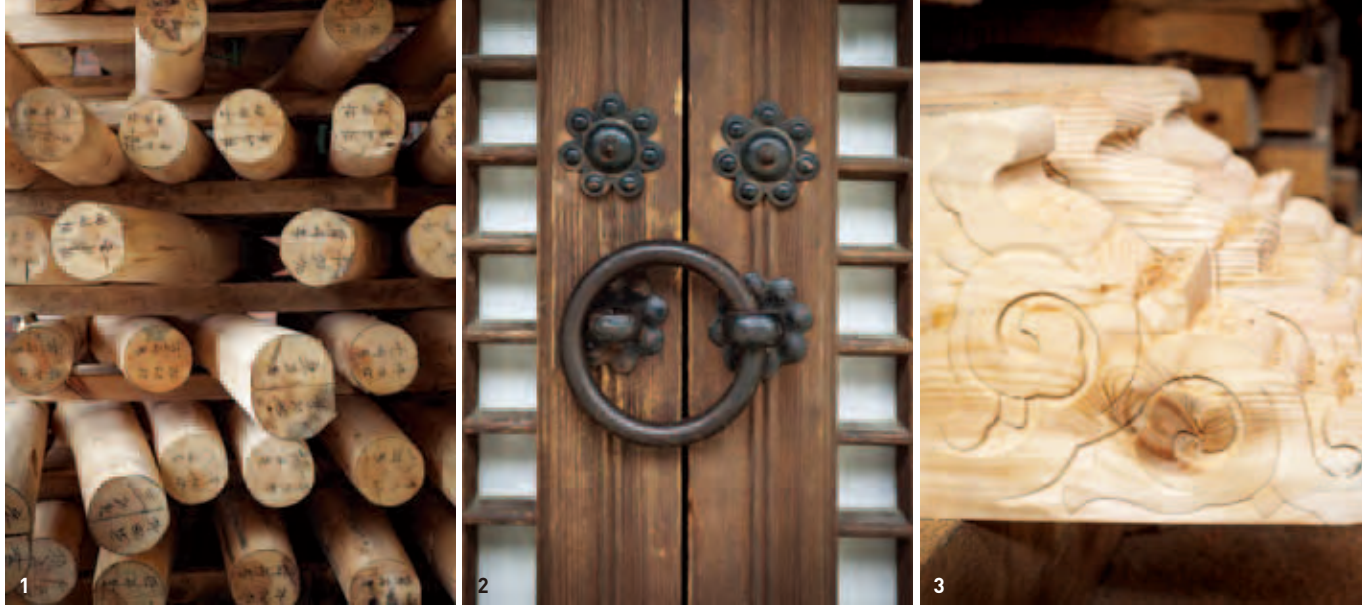
집의 소재와 형태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산이 많고 추운 강원도의 집은 지붕이 낮고 추녀가 길며, 양통집이라 불리는 겹집이 많았다. 반면 경기와 충청의 집은 ㄱ자형과 ㄴ자형 구조에 이엉을 엮은 초가가 대부분이었다. 경북의 집은 강원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경남의 집은 온화한 탓에 겹집보다 홑집이 많았고, ㄱ자형과 ㄴ자형이 대중을 이뤘다. 전라도 역시 경남과 유사한데, 규모가 큰 초가는 안채와 팔림채가 어울린 ㄴ자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좁은 한반도에 어쩌면 이토록 다양한 양식의 건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집을 지어 내는 한국인의 솜씨는 탁월했다. 건축자재라 하기도 민망한 나무와 풀 잎만으로도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해 건축한 민초들이었으니, 하물며 궁궐과 사찰, 서원은 어떠한가.

우리네 고건축을 거론하며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인 신응수 대목장. 지난 5월 4일 복구 기념식이 열린 승례문과 그의 인연은 기막히다. 입문 5년 만에 승례문 중수공사에 참여했던 것. 그러니 그의 이번 작업은 화재로 소실된 스승 조원재 도편수의 작품을 복원한 셈이다.

그와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워낙 진행 중인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5월 말에는 한 대기업 총수의 생가를 복원해 준공식을 가졌고, 양산의 종가 복원에도 시간을 내야 했다. 하지만 그가 20년 넘게 장기

1 '열화당(悅華堂)' 건너편, 행랑채가 사진 왼쪽으로 줄지어 있다. 만약 이 행랑채가 문화재의 일부여서 손대기조차 버거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누구나 인터넷 예약으로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집 떠난 심사가 흔들려 새벽에 눈을 뗐다면, 선교장 뒤 술밭을 무심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절로 된다. 2 배롱나무를 눈썹처럼 지붕에 엮은 '활래정(活來亭)'. 연못을 뒤덮은 연꽃과 기와를 장식한 잎사귀가 활래정을 상하로 감싸고 있다. 사진 속 열어젖힌 문 뒤로 건물 너머의 풍경이 액자 속의 액자가 되어 풍경의 재미를 더한다. 3 선교장에 이면 디테일이 있다! 두 개의 중문이 만든 프레임 아래 문턱을 보라. 유순한 ㄴ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이나 미감을 떠나, 문턱을 넘을 누군가의 서툰 걸음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4 열화당 살창에 기댄 신응수 대목장. 그에게 물었더니, “이만한 집이 드물다”며, “이런 집이 지금까지 후손에 이어진 게 더 드문 일”이라고 했다. 후손들의 열정을 높이 산다는 얘기일 것이다.

근속하고 있는 작업이 있다. 바로 경북궁 복원사업이다. ‘큰 복을 누리라’는 작명자의 기원이 무색하게 경북궁은 술한 화재와 중건이 반복되는 비운의 궁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이면서도 오히려 이궁(離宮)들에 주인을 빼앗긴 외로운 운명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경북궁은 7%에 불과한 건물만 초라하게 남았다. 정궁 복원을 통해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1년의 일. 신응수 대목장의 책임 아래 20년 1차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이는 전체의 25%만 복원된 것이란다. 이어진 2차 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라간인 소주방 일원에 대한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254동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전체 379동이 새롭게 들어서 원래 규모의 75.8%가 복원될 것이라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듯 대업을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를 온 좋게 만난 곳은 강릉 제재소였다. 왜 하필 강릉에 제재소가 있는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야, 나무 때문이죠. 양양에서 울진까지의 나무가 제격이거든요.”



1 강릉 제재소에 쌓인 나무들의 절단면에 그들이 시집 가 수백 년을 살 주소가 적혀 있다. 한 자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목숨을 다한 뒤, 다시 수백 년을 뿌리도 못 내리고 한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그녀들의 숙명이라니. 2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라,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3 어쩌면 단청을 입히기 전,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4 자신의 몸통보다 훨씬 굵은 나무를 어루만지는 신옹수 대목장. 전국을 떠돌아 손자를 안아볼 새도 없는 팔자지만,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았을 나무가 손자와 무에 다르랴.

그가 말하는 나무는 바로 소나무다. 대목장에게 소나무 이외의 나무는 그저 잡목일 뿐이다. 그런데 왜 소나무일까?

“집이 크든 작든 짜임새가 있어야 좋은 집입니다. 소나무를 잘라보면 목질이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뒤틀려 내려오거든요.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집을 지어도 하중을 견디며 오랜 세월을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궁궐 건축에는 항상 소나무만 쓰인다. 안면도의 소나무를 왕가에서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안면송’이라 불리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거북선도 이 안면송의 덕을 봤다니, 조선 소나무의 위엄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제재소에서 차로 10여 분 남짓한 거리의 선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활래정을 지나 사랑채인 열화당으로 향했다. 연잎이 연못의 수면을 지워버린 활래정을 지나던 그가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서까래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걸” 한다. 서까래가 너무 짧아 대감이 초립을 쓴 모양이라 격에도 맞지 않고, 비가 들이쳐 문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다. 그 순간, 문외한의 눈엔 오랜 세월 그저 아름답기만 하던 활래정이 강충해 보인다. 이런 걸 두고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 하는 건가.

지금이야 다 매립되었지만, 배를 타고 집 앞 호수를 건너 들어와야 했다 해서 이름 붙은 선교장.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 비견될 만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이곳의 사랑채 열화당에 대한 대목장의 찬사가 계속 이어졌다. 건축학적으로 빼어난 열화당의 품격이 더욱 돋보이는 건 열화당이 등지고 있는 숲의 우아한 풍경 때문 아닐까.

그렇다. 한국 고건축의 백미는 자연과의 어울림에 있다. 그 어울림이란 비단 아흔아홉 칸 사대부의 고대광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흙으로 벽을 세운 누추한 초가의 지붕도 우리 산하의 유전자들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지 않은가. 자연을 거스르거나 위배함이 없다. 주춧돌은 또 어떤가. 격식을 따라야했던 궁궐을 제외하면, 주춧돌은 생긴 그대로 쓰거나 깬 돌을 써서 인공미를 배제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선조들은 주춧돌이 땅속에서 불쑥 솟아 자연의 힘으로 집의 기운을 감싸는 그런 자연미를 원한 뜻이다.

땅에서 솟은 주춧돌은 다시 면을 최소화로 다듬은 나무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붕은 마치 동산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 한국의 여염집이었다. 아뵐싸, 이런 깨달음을 얻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탄하게 된다.

또 우리 고건축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 바로 사찰과 서원이다. 먼저 한국의 사찰은 선의 극치다. 건물의 선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동선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사는 일주문을 지나 금강문, 천왕문, 누(樓)를 지나 부처를 모신 대웅전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서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한, 또 하나의 엄격한 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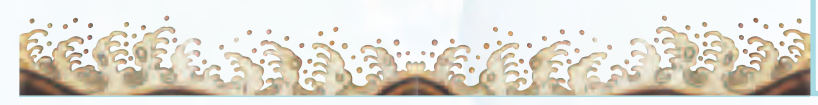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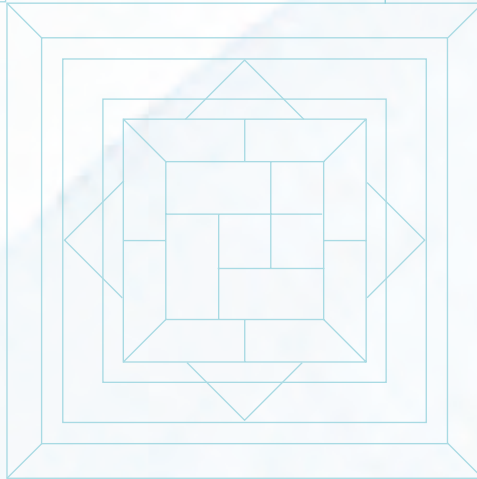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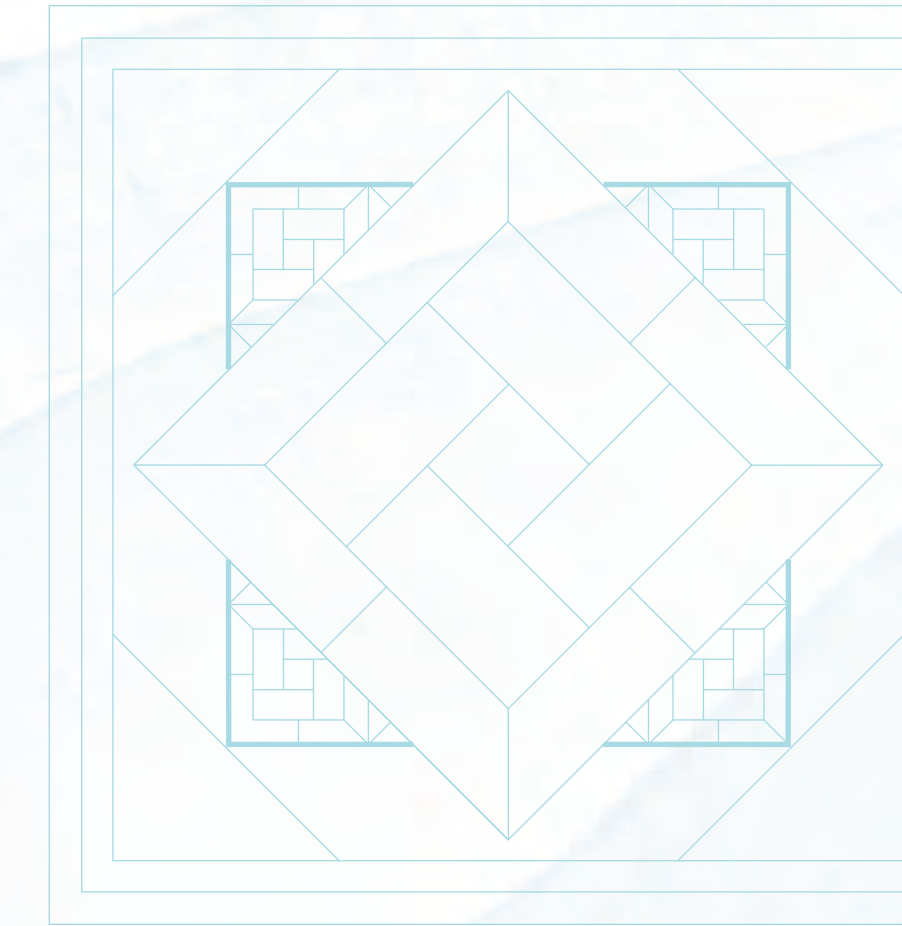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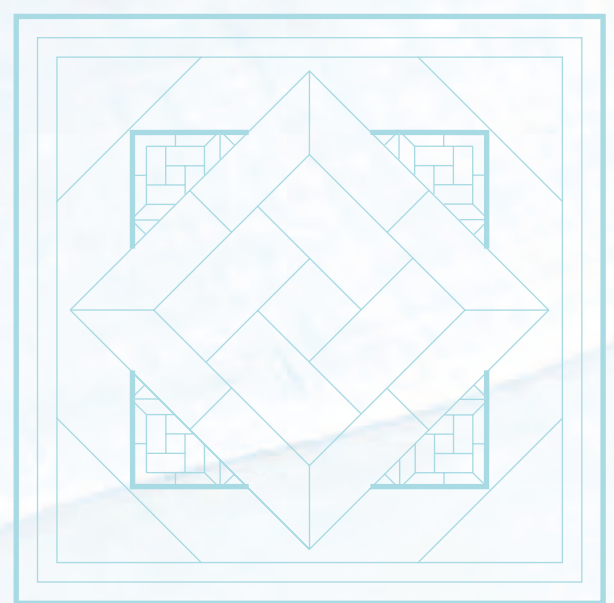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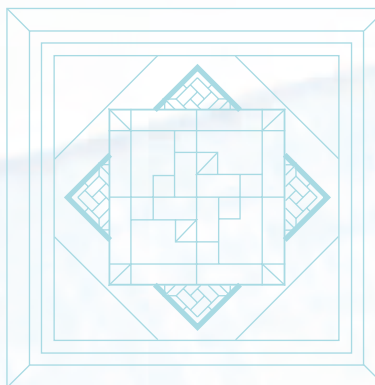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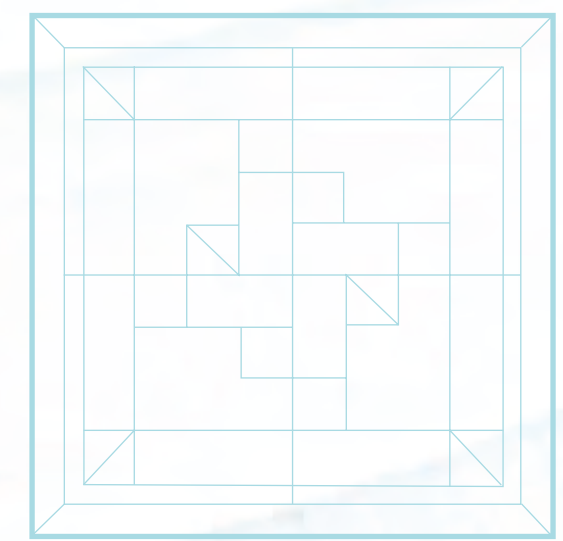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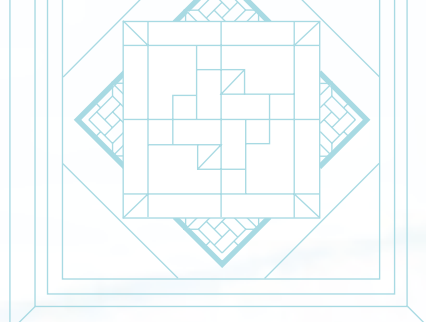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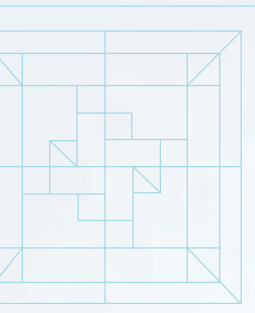
불교와 더불어 조선의 정신을 지탱해온 유학의 성지, 서원 역시 그렇다. 교육과 제례라는 덕목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답게 제례를 올리는 장소라는 특유의 엄숙함과, 서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공간이 엄격히 공존하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고건축을 그저 문화재 정도로, 우리의 문화유산이니까 아름답게 지키려는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집은 사유와 자연 합일이라는 철학과 역사의 흔적인 동시에 우리와 현재를 숨 쉬고 있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 그 이상의 것이다. S

글 최태원 사진 양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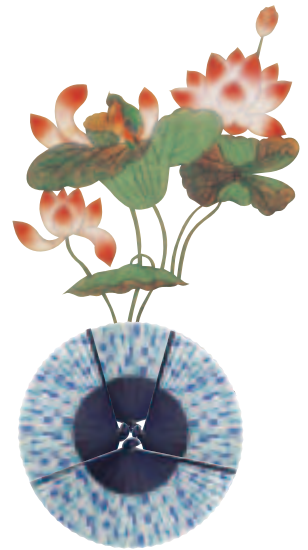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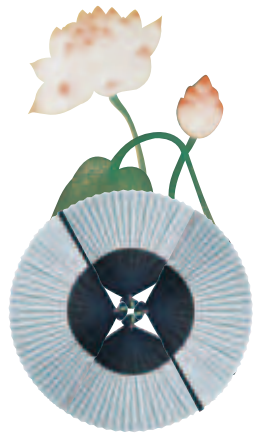


지치기 십상인 여름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기운차게 보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물맛이 풍속을 보여주는
유두절을 기점으로 기력을 충전할 먹을거리를 나누던 복날,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시 한 수 읊던 탁족의식 등
선조들에게 여름은 산이나 계곡을 찾아 폭포 아래에서 물맛이를
하는 풍류의 한마당이었던 셈. 복더위도 자연의 벗으로 삼아 즐겨
온 우리네 여름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름, 자연에서 놀다



여름! 물맛이하라

여름의 시작과 끝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천문학의 여름은 하지(6월 중순)에서 추분(9월 중순)까지고, 기상학에선 6월에서 8월까지를 여름으로 친다. 24절기에 따르면 입하(5월 초)부터 입추 전날(8월 초)까지가 여름이다. 하지만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들어 있고 초복과 중복까지 끼어 있는 7월(음력 유월)이야말로 맹하(孟夏, 초여름)의 풋더위를 녹여버리는 성하(盛夏, 한여름)임이 분명하다. 여름 중의 여름, 그중에서도 한복판인 유두(음 6·15)에 여름 풍속의 대명사인 ‘물맛이하라’가 열리는 건 그런 까닭이다.



빨래터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중 ‘빨래터’. 냇가에 나와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부채로 가린 채 훑쳐보는 선비의 모습이 해학적인 작품으로, 옛 여름날의 풍경 한 대목을 느껴 볼 수 있다. 종이 위에 엮은 채색으로 그려 졌다. 39.7×26.7cm.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삼복은 속절, 유두는 가일

유두(流頭)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의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줄임이다. 수두는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의 한자어로서 물맛이하를 일컫는다. 신라 때부터 이어진 물맛이 풍습에 대해 13세기 고려의 문장가인 김극기는 이렇게 적었다.

‘경주 풍속에, 유월 보름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액을 떨어버리고 술 마시고 놀면서 유두 잔치를 벌인다.’ <김거사집(金居士集)>

유뒸날 마시는 술은 ‘유두음(流頭飲)’이라 했다. <고려사>에는 ‘유월 보름날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일을 제거한 뒤 회음(會飲)하는 것을 유두음이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두 물맛이는 단순히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쫓는 일종의 정화 의식이다. 야외에서 함부로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을 수 없던 여인네들도 이날만은 거리낌 없이 머리를 풀어헤쳤다. 유두음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신성한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물맛이 뒤엔 참외, 수박 같은 햇과일과 밀국수(유두면), 밀전병 등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불렀다. 밀가루를 구슬 모양으로 반죽한 ‘유두국’에 오색 물감을 들여 색실에 3개씩 꿰 다음 몸에 차고 다니거나 문쪽에 매달면 액을 막는다고도 했다. 이날 팔도의 강변과 계곡은 온통 유두 잔치로 떠들썩했는데, 유뒸날을 서늘하게 보내면 더위를 먹지 않고 여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설에 따르면 신라 때의 이두(吏讀)식 표기라는 유두는 이 땅에서 생

겨나고 이어진 한민족 고유의 풍속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동유가 펴낸 <주영편(晝永編)>에도 “이 나라 명절 중 오직 유두만이 고유의 풍속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중국에서 절일(節日)이라 일컫는 날”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는 <농가월령가> 유월령(六月令)에서 유두 풍속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복(三伏)은 속절(俗節)이요 유두는 가일(佳日)이라 / 원두밭에 참외 따고 밀 갈아 국수하여 / 가묘(家廟)에 천신(薦新)하고 한때 음식 즐겨 보세 / 부녀는 해피 마라 밀기울 한데 모아 / 누룩을 디디어라 유두국을 치느니라.”

옛사람들의 피서법

‘...바람이 불어와도 화염만 같아 / 부채로 불기운을 부쳐대는 듯 / 목말라 물 한 잔 마시려 하니 / 물도 뜨겁기가 탕국물 같네...’

읽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것만 같은 이 글귀는 고려 문인 이규보의 <고열(苦熱: 무더위)> 중 한 대목이다. 유두 물맛이하를 했다고 해서 여름 나기가 수월했을 리는 없을 터, 옛사람들은 찌는 듯한 삼복의 불볕을 어떻게 견뎠을까?

남정네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왔다. 여염집 사내라면 계곡에서 옷통을 벗고 등목을 할 수 있었고, 사대부들도 서늘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 <송하관폭도>나 <고사탁족도> 같은 조선시대 그림들엔 폭포를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거나 저고리를 풀어헤친 채 삼삼오오 탁족을 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여인네들이 찬물에 손발을 담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빨래터였다. 김홍도의 <빨래터>에는 치마와 고쟁이를 걸어 다리를 드러낸 채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도 여염집 아낙들 얘기고, 양반집 마님들은 뒤뜰 연못가에서 물빛을 감상하는 것 외엔 달리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었다.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에 등장하는 장죽 든 기녀의 모습은 삼복을 맨몸으로 견디며 하릴없이 가을을 기다리던 안방마님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잠 못 드는 여름밤에 유용하기로는 죽부인(竹夫人)만한 게 없었다. 기혼녀를 뜻하는 ‘婦人’이 아니고 고관의 아내를 뜻하는 ‘夫人’이었으니 요즘으로 치면 ‘사모님’인 셈이다. 유교의 엄격함은 한낱 물건에도 예



연못가의 여인 조선시대 여인의 삶을 주로 그리며 섬세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신윤복의 <여속도첩> 중 ‘연못가의 여인’. 활짝 핀 연꽃을 무릎에 바라보며 앉은 여인에게서 한 여름 대낮의 긴 시간을 잊볼 수 있다. 29.6×31.4cm.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외가 아니어서, 아버가 꺼안고 자던 죽부인은 결코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았다.

규방의 아녀자들이 쓰는 죽부인은 ‘죽노(竹奴)’라 불렀다. 마당쇠를 연상시키는 그 발칙한 이름에 깃든 해학은 풍습과 체통에 콩콩 간혀 있던 세상을 그나마 숨 쉬게 해주던 일종의 숨구멍이 아니었을까.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늘이로 거듭나라

여름이 되면 무더위 탓에 집안일이 더 고된 일이 된다. 먹을거리를 가려야 하고, 빨랫감도 늘어난다. 고된 집안일 속에서도 자연을 벗삼아 여름을 나던 옛 여인들의 일상을 둘러본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권무석 공시장(070-8237-4502), 유영기&유세현 공시장(031-944-6800), 김동학 전통장(054-745-0866), 김동식 선자장(010-8640-4191), 이종남 천연염색연구소(02-762-5310), 규방도감(02-732-6609), 가원공방(02-2278-020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02-733-9041),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여름을 염색하다

계곡에서 이는 바람에 서서히 말라가는 옷감을 바라보던 여인의 마음에 자연이 곱게 물든다. 대나무 빨래 틀에 염색한 옷감을 걸어 두고 가족들의 시원한 옷을 지을 생각에 미소 지었을 여인의 심성이 색색의 고운 빛깔을 담았다.

쌍고지실로 지은 옥사(玉紗)와 생명주실로 지은 생사(生紗)로 물들인 옷감은 모두 이종남 작가의 작품. 동근 향아리는 규방도감 소장품이다.





계절을 수양하다

'활쏘기는 도 닦기'라는 말이 있듯이, 사대부들에게 활쏘기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수양법 중 하나였다. 여름이면 더위도 마다 않고 심신을 단련하던 낭군을 위해 아낙들은 지난봄에 마련한 새순을 띄운 차를 정자에 내었다. 땀을 흘린 뒤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보다 더 뜨거운 수양이 또 있을까.

왼쪽 활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권무석 공시장의 작품, 화살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유명기 공시장과 유세현 공시장 전수조교의 작품, 화살통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김동학 전통장의 작품이다. **오른쪽** 보자기로 여민 속이 깊은 바구니 두 개는 박유진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정재호 도예가의 청화백지초문 다기세트를 담은 동근 불은 이은빈 도예가의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여름놀이 가다

여름 찬을 담은 도시락 싸 들고 그늘을 찾아 나선다. 발밑에 물이라도 있으면 물바람만으로도 이내 더위가 식는다. 여인들은 부채에 그림을 치고 찬을 나누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낸다. 음식을 만드는 노동도 부채를 만들어 선물하는 노고도 모두 즐거운 놀이가 된다.

왼쪽 펼쳐진 부채는 금강산도선 합죽선, 접힌 합죽선은 사군자 대나무 그림선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김동식 합죽선 선자장의 작품이다. **오른쪽** 면직물에 와이어를 사용, 여밈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보는 진흥원매키지, 옷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도료로 칠을 한 2단 찬함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호 정명채 나전장의 작품. 나무에 옷칠한 둥근 원형 도시락통은 강화정 작가의 작품으로 모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원형 도시락통 밑의 흰 손수건은 규방도감.





그늘 만들어 멋내다

옛 여인들의 소박한 여름 사치가 바로 붕숭아 물들이기다. 언제 내릴지 모를 여름 비를 생각해 지우산 챙겨 냐가로 간 여인들의 수다도 소란하다. 곱게 물들어가는 손톱을 보며 첫눈이 내릴 때까지 이 빛깔 그대로 간직하여 사랑하는 이를 만나겠노라 미소 짓는 여인의 불이 수줍다.

때죽나무와 대나무 실에 들기름을 먹인 한지를 발라 만든 지우산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윤규상 우산장의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릇에 담긴 지혜, 여름 음식

계절과 절기에 맞춰 먹는 음식엔 옛사람들의 웅숭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여름 음식의 시작으로 꼽히는 단오(음 5·5) 수리떡부터가 그렇다. 이 떡은 쭉쭉과 멧쌀가루를 반죽해서 만드는데, 한의학에 따르면 단오 무렵의 쭉이 1년 중 약성이 가장 좋다고 한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유두날(음 6·15)에는 유두면, 상화병, 보리수단 등을 먹는다. 유두면은 햇밀가루에 닭고기를 넣어 만든 국수와 상화병은 밀로 만든 떡이다. 밀가루를 막걸리로 반죽해서 부풀게 한 다음 꿀, 채소, 고기볶음 같은 소를 넣고 시루에 찌면 '서리꽃떡'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의 상화병(霜花餅)이 된다. 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른 곡류보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생기와 의욕을 북돋우는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한다고 하니 한여름에 제격이다. 유두날 쌀 대신 밀로 떡을 찌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햇보리와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꿀을 넣어 만든 보리수단 역시 여름 나기에 단단히 한몫을 했다. 오미자에는 40여 종의 리그난(항암 및 항산화제 효과가 있는 식물성 천연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간 보호와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한다. 여름철에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보리수단의 역할 중 하나다. 이렇듯 옛사람들은 계절 재료들로 그 계절에 꼭 필요한 '스태미나 식품'과 '기능성 음료'들을 척척 만들어냈다. 여름 음식 얘기를 하려면 삼복(三伏)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夏至) 뒤에 천간(天干)으로 따져 셋째 경일(庚日)이 초복, 넷째 경일이 중복, 입추(立秋) 뒤 첫 경일이 말복이다.

복날은 진(秦)나라 때 생겨나 이 땅에 전해졌는데, 중국 후한시대의 문헌엔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더운 기운 앞에 납작 엎드렸다(복장:伏藏)는 뜻'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반면 최남선의 <조선상식>엔 '서기 제복(暑氣制伏)', 즉 더위를 꺾는다는 풀이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한민족에게 복날이란 더위에 굴복하거나 피하는 날이 아니고 맞서서 제압하는 날이다.

삼복 음식의 대명사는 계삼탕(삼계탕)과 개장(보신탕)이다. 지역에 따라 개고기 대신 다른 육류를 넣기도 했는데, 소고기를 넣으면 육개장이 되고 닭고기를 넣으면 닭개장이 된다. 이렇듯 복날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국을 끓여 먹는 것을 '복달임'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엔 개고기의 효능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농경민족이 귀한 소를 잡을 수도 없고 한두 끼 먹자고 돼지를 잡을 수도 없으니, 복날 민초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는 닭과 개박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개고기를 먹었던 풍습에 대해 새삼스레 알가알부할 필요는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은 각자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계사년(癸巳年)의 여름! 올해 복날엔 한번쯤 경일(庚日)의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다. 천간(天干) 중 일곱 번째인 '경(庚)'엔 '새날을 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 저마다의 새날을 꿈꾸며 정성껏 복달임을 한다면 심신이 두루 보양 효과를 얻지 않을까.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韓

雪花秀

보다 완벽한 안티에이징- 한낮의 빛과 열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설화수 소선보크림

낮 시간 피부 온도를 높이는 강력한 빛과 열은 피부 콜라겐을 분해하여 노화를 가속화하는 외부 자극이 됩니다. 한낮의 자외선, 적외선을 비롯한 생활 속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이 안티에이징 소선보크림- 낮부터의 집중관리가 밤 시간 안티에이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편백나무 성분이 피부 방어력을 길러주고 홍삼성분이 주름을 개선합니다. 보다 완벽한 안티에이징을 위해, 낮 시간 빛과 열로부터 피부를 지키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소선보크림

TPF40 TPF(Thermal Protection Factor, 열보호지수), TPF는 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TPF40은 적외선 등의 외부 열 자극으로부터 40% 상당의 피부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Sulwhasoo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노거목이 둘러싼 숲에 천심(天心)이 담기다

죽세공으로 백성의 생계를 이끈 대숲, 홍수에 대비하여 민초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 관방제림(官防堤林)이 전라 담양에 있다. 나무를 살피고 숲을 가꾸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고자 이룬 이 숲은 '사람을 하늘로 여긴 선조의 마음이 빛은 곳이 아니겠는가.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절개와 겸양의 대숲

속은 비었으되 줄기가 곧아 '절개와 겸양의 덕을 두루 지녔다'하여 선비들이 늘 닮고자 했던 나무가 대나무다. 기온만 맞으면 자라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숲이 되었으며, 약이 귀한 시절 대나무의 어린 순은 기력을 돋워주는 음식이 되었으니, 우리 선조에게 대나무는 아름다움과 강인함 그리고 실용을 두루 갖춘 하늘이 내려준 나무였을 게다.

The nobility always wanted to be like the bamboo tree because this tree is empty inside yet straight, which implies both humility and integrity. With the right temperature, it grew tall to protect villages from strong winds, and its young sprouts became invigorating food for undernourished people. For our Korean ancestors, the bamboo tree must have been a gift from heaven with its beauty, strength and practicality.





푸른빛의
풀이
저
그림이
되
다

누가 이토록 푸른 것을 여기에 풀어 두었을까. 서걱이는 바람 소리마저 그림이 되는 대숲이 너르게 펼쳐진 담양은 대나무가 많아 죽향(竹香)이라 불렸다. 죽림(竹林)을 '생금발'만큼 귀히 관리한 덕에 질 좋고 굵은 대나무가 많은 담양은 이미 500여 년 전부터 죽공예의 본거지다. 그러니 대숲에서 만난 푸름은 사람의 손끝이 만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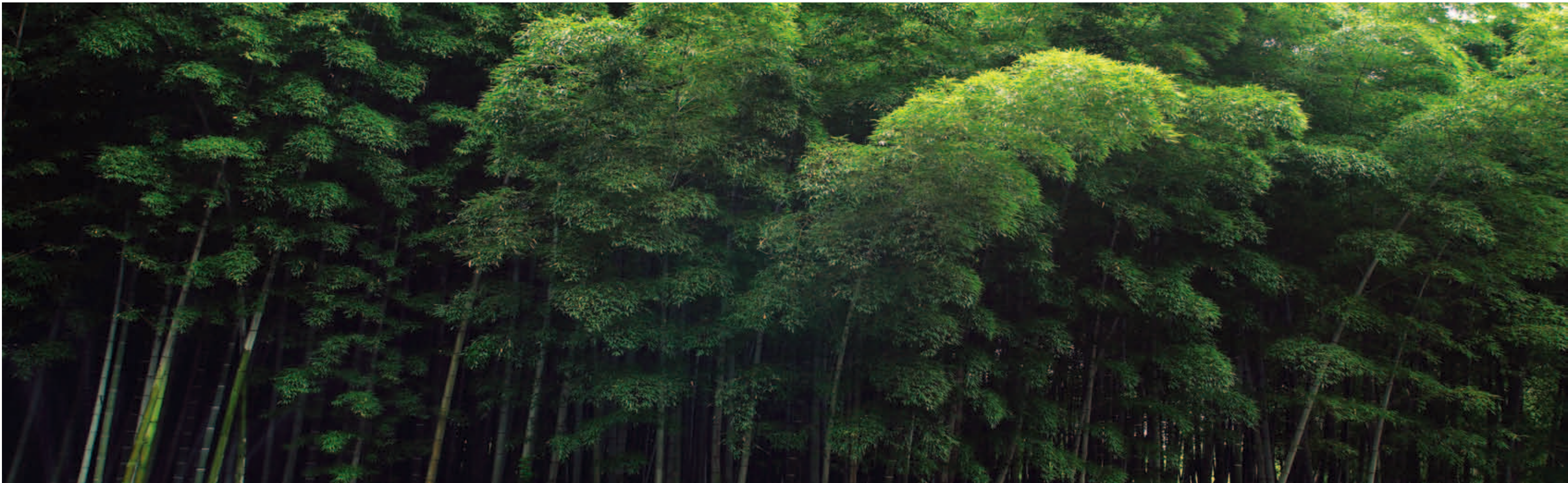
Who could have spread something so green here? Damyang, with its picture-perfect bamboo forest, was called Jukhyang due to its bamboo trees. Because Damyang's bamboo forest is managed with devoted care, it has grown many thick bamboo trees and has been the home of bamboo crafts for 500 years. The greenness you see in the bamboo forest was created by the touch of men.



비를 막아내는 숲

1648년, 모진 비가 내려 영산강 상류 주변의 60여 가구가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자 담양부사 성이성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이후 유구한 세월 내내 담양에 부임하는 관리마다 사재까지 털어가며 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깊게 퍼져 비와 바람을 든든히 막아주는 푸조나무가 즐비한 관방제림의 역사이며, 이 숲을 지켜온 마음이다.

In 1648, a heavy rainfall destroyed about 60 households around the upstream of Yeongsan River. Thereafter, Yi-Sung Sung, the Governor of Damyang, built an embankment there where he planted trees. For a long time ever since, each Damyang governor has planted trees even with his private funds. This is the history of the luxurious forest of muku trees in Damyang whose roots dig deeply to protect the village from the rain and strong winds.



내
아
비의
아
비가
일
흔
숲

숲에 이르러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씻다보면, 문득 아득한 시간의 한 토막이 성큼 다가온다. 노거목이 빼곡한 이 숲은 결국 시간의 산물이며, 걷기 좋게 다져진 반들반들한 산책길 역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져낸 흔적인가. 내 아비의 아비의 아비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또 그의 자손이 벌레 먹은 잎을 살피며 가꾸었을 이 숲에서 선조의 깊은 눈망울을 마주한다.

As you wash your tired body and mind in the cool water by the forest, a thought freezes your consciousness in a moment in time. This forest, filled with tall old trees, is the product of time, and its smooth trail has been compacted by the footsteps of countless people. You will meet the eyes of our ancestors in this forest, where the trees were planted by your great grandfather and managed by his descendants.

피아니스트 김정원
따뜻한 손길을 건네다

예술이 자신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공감시키는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자세는 겸손하면서도 진실하다. 그가 건네는 손길은 언제나 음악의 체온을 전해줄 만큼 따뜻하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놀림은 청중들의 기대보다 섬세하다. 따뜻하고 겸손한 관객과의 소통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난 14세 소년의 가슴에서 시작되었다.





빈에서의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소년 김정원은 허름하고 외진 동네의 지하철역에서 무심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소 우울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낡은 지하철역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클래식 공연 포스터. 소년에게 그것은 매우 낯선 풍경이었다. 문화적 혜택이 일찌감치 증발해버린 듯한 동네에 화려한 클래식 공연 포스터라, 왠지 번지수가 맞지 않은 어색한 조합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누가 이런 포스터를 보겠어?

그때였다. 그의 편견을 깨끗이 치워내듯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지하철을 기다리다 김정원과 함께 포스터에 시선을 두었다. 잠깐 무엇인가 생각한 뒤 할머니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와 볼펜을 꺼내서 연주회 일정을 적기 시작했다. 클래식과는 동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할머니가 연주 일정을 기록하는 장면은, 그에겐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곳에서 클래식은 사치스러운 일부 계층의 음악이 아니라 남루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대중음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래식에 대해 호기심은 많지만 너무 많은 벽에 가로막혀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듯해요.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죠. 종종 클래식이 소수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 음악인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역사적으로도 클래식 음악은 결코 배부른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작곡가가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음표들은 대부분 모진 가난이나 병마와 싸우면서 이뤄낸 결실이죠. 태생적으로 클래식은 아프고 힘든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음악인 겁니다.”

소년에서 청년, 어엿한 음악계의 중심이 되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클래식을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깊게 전하고 싶다는 음악적 사명이다.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관객과의 ‘소통’이 여전히 그에겐 절실한 이유다. 그는 말한다. 연주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작곡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예술인이라고. 만약 제대로 음악을 전하지 못한다면 음악적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라고. 그것은 단순히 관객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의미, 그 이상이다.

그래서인지 그가 관객에게 손을 내미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은 유럽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진행하는 연주 활동이다(경희대학교 음악대 기악과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어 유럽 투어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 ‘MKK 앙상블’을 결성해 활동하는가 하면, 대중음악인과 손을 잡는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은 올해로 벌써 7년째를 맞았다. 솔로, 협연, 크로스오버 등 그의 손을 거쳐간 음악은 마치 무늬를 달리하는 비단처럼, 짜임새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신선하고 흥미롭다.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은 친한 대중음악인이나 클래식계 지인들과 함께해서인지, 종종 상업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 공연은 정말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웃음) 이런 공연의 목적은 하나예요. 아직까지 클래식이 낯선 관객들을 편안하게 정통 클래식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을 보고 ‘나도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제 피아노 독주회까지 오시더라고요.”

다만 음악적 내공이 쌓이면서 관객과의 소통에 한 가지 단서를 붙였다. 김정원의 진심을 보여주되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려 욕심내지는 말 것. 고백하자면 공연을 하면 할수록 연주가에겐 일종의 ‘스킬’이 쌓인다. 어떻게 연주 하면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지, 청중들이 눈을 떴는지 못하는지, 좋은 관람 후기를 받을 수 있는지, 뚜렷한 지도를 보듯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스킬이 눈에 보일 즈음이면 연주자는 고민에 빠진다. 음악 자체에 집중할 것인가, 관객의 호응에 치우칠 것인가.

“지난해 슈베르트를 연주했던 리사이틀에 대해 어떤 분들은 좀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20대에 이 곡들을 연주했다면 분명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만의 음악적 양념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여백이 담긴 슈베르트 음악의 본질,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최대한

음악 뒤에 제 자신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게 연주자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돌이켜보면 연주의 본질을 처음 가르쳐주신 분은, 제2의 아버지로 여기는 빈 국립음대의 교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찬사를 받았던 대학졸업 연주를 마친 뒤였다(그는 피아노과에 최연소로 수석 입학했고 역시 최우수 졸업을 했다). 의기양양하게 교수실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 쏟아진 것은 생각지도 못한 매서운 혹평이었다.

“스승님은 제가 연주하는 90분 동안 바흐나 베토벤, 쇼팽의 어떠한 음악도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오로지 김정원의 자랑질만 들었다면서 매서운 혹평을 하셨죠. 피아니스트에게 최고의 찬사는 연주가 끝나고 ‘김정원이 잘 쳤다’가 아니라 ‘오늘의 베토벤이 너무 좋았다’ ‘브람스의 곡이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다’는 평가라고 하셨어요.”

기교에 흠추던 그 시기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겸손해지라는 스승님의 가벼운 충고쯤으로 받아넘겼다. 하지만 세월이 훌쩍 흐르고 음악적 깊이가 깊어질수록 졸업 연주에서의 혹평은 갈수록 그의 가슴에 뚜렷하게 박혀 음악인으로서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었다.

최근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화두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 평생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연주자로 살기 위해서는 손이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혹독한 연습을 이어가야 한다. 인생의 목표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 손놀림이 느려진다는 신호는 음악적 기교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연주의 질 자체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마흔 즈음에 닿으면 ‘평생’에 걸친 혹독한 연습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대입 수험생마냥 살아야 하는 현실에 머뭇거리진다.

“마흔에 접어드는 내년부터는 하루 연습시간을 1시간씩 더 늘릴 겁니다. 기교적인 부분을 포기한다면 제가 추구하는 음악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전 가족 잔치가 아니라 대중에게 표를 팔 수 있는 연주자로 살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피아노를 치고 싶은 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그는 어머니의 간섭과 관심으로 음악을 지속해온 친구들과 달리, 스스로 음악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연습에 몰입한 부류에 속했다. 굳이 환경적 영향을 따지자면 매우 독특한 교육 방식을 유지한 어머니의 공이 크다. <옛날의 금잔디> <은실이> <복희 누나> 등을 집필한 방송작가계의 대모 이금림 씨, 바로 그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교육방식은 방임을 넘어 방치에 가까웠다. 그가 아침에 엄마를 접견(?)할 때는 밤새 집필을 하다 지쳐 잠든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준비물을 세심하게 챙겨주거나 성적이 좋아서 선물을 해주는 일 따위는 주위 친구들에게 풍문으로 들었을 뿐, 그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얘기였다. 성적표에 사인을 받아가는 것조차 가르쳐줄 테니 네가 직접 하라고 얘기하셨을 정도였다.

“솔직히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워낙 저를 방치하셨거든요. (웃음) 하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곁에서 보면서 저도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삶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이랄까. 만약 어머니가 매를 들고 억지로 피아노 연습을 시켰거나 매사에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했다면 제가 과연 평생 연주자로 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가 관객에게 내미는 음악적 손길은 언제나 현재적이며 유효하다. 그래서 관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복잡한 음악적 지식일랑 머릿속에서 가볍게 지우시라, 얘기한다. 그저 음악을 즐기겠다는 마음과 조금 귀 기울여 들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클래식 음악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당신에게 건넬 준비가 되어 있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김민선(보보리스 02-549-0988) 메이크업 서은(보보리스 02-549-0988) 스타일리스트 박송이 더 클래스(02-2140-0503), 반하트 디 알바자(02-3274-6356), 베르사체 by 갤러리아클락(02-3446-7725), 미소페(1577-5499), 타미힐피거 by 사뮈로(02-514-0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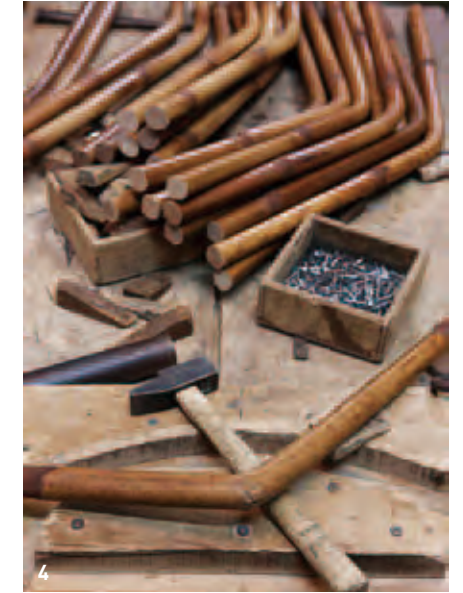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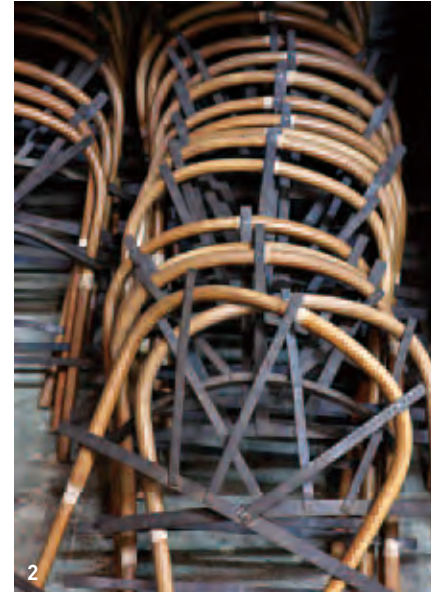


작품으로 불리는 등나무 의자, 메종 드러커(Maison Drucker)

등나무 줄기로 제작된 다이내믹한 등나무 의자는 그 시원한 감촉과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폴란드계 가문이 설립한 메종 드러커(Maison Drucker)는 1885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탄생한 등나무 가구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사랑을 받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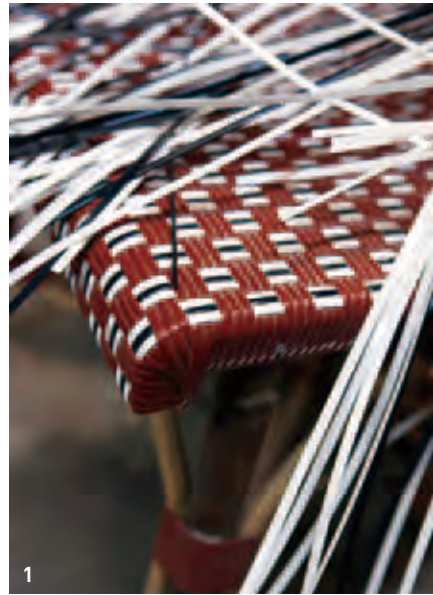


유럽 영화 등에서 우아한 맥주 바나 온실의 포인트로 자리한 메종 드러커(Maison Drucker) 등나무 의자를 기억하는가. 메종 드러커는 20세기 초부터 인테리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드러커 가문은 1870년에 고국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정착했다. 이후 알자스 지방의 수도인 스트라스부르크 피레네 거리(la rue des Pyrénées)에 작업장을 세웠다. 드러커는 동부의 - 특히 독일 가구 브랜드 토네트(Thonet)의 - 고급 등나무 가구 전통을 바탕으로 의자와 팔걸이 의자, 긴 의자, 발 하나 달린 조그만 원탁 등을 생산해 왔다. 의자의 구조를 만드는 재료들은 극동지방에서 수입되었는데, 빛깔이 연한 등나무 줄기는 마닐라에서, 빛깔이 진한 등나무 줄기는 말라카(말레이 반도 남서안의 도시)에서 배로 들여온 등나무 줄기로 제작되었고, 좌석과 등받이는 천연의, 혹은 모티브(문양)를 만들어내기 위해 색채를 입힌 나무로 제작되었다. 이 새로운 양식은 선보이자마자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드러커의 작업장들은 곧 수요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 되었고, 이후 7세기부터 광주리 제작 장인들이 모여든 유서 깊은 파리 동쪽의 버드나무 숲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 버드나무 숲, 발레 드 로톤(la vallee de l'Automne)에 자리잡은 이후 드러커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빈티지 & 모더니티

멋진 등나무 줄기로 제작된 진품 의자라면 어김없이 의자 등뒤에 있는 드러커의 상표를 확인할 수 있다. 드러커는 천연 등나무 줄기를 엮어서 짠 의자를 오랫동안 제작해 왔지만, 현재 주로 만드는 의자들의 소재는 색채를 입힌 릴산(rilsan) 플레이트(판)다. 릴산 플레이트는 아주까리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자외선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무려 70가지 이상의 색채 조합이 가능하다. 시간이 흘러도 훼손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어 의자의 영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공장장인 브뤼노 뒤

1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비셰가 디자인한 로열 팔걸이 의자. 2 금속 띠로 틀(형태)이 잡혀지는 의자 등받이. 3 사각형으로 엮어 짜인 다양한 컬러의 표본들. 4 의자 팔걸이 틀로 쓰이는 나무 조각들.



1



2



3

브와의 공로다. 그는 디자이너들과 작업하면서 드러커의 전통을 이어 나가면서도 모더니티를 새롭게 결부시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사실 인테리어 분야의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은 틈틈이 빈티지 카탈로그에서 착상을 얻어 새로운 라인을 탄생시킨다. 필립 스타크는 로열 몽소(Royal Monceau) 호텔의 인테리어를 위해, 프랑스와 샹소, 앙드레 풋맨 그리고 질 & 부아시에는 미니팔레(Minipalais)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위해, 파트리크 노르케 혹은 크리스티앙 비쉴레는 포송(Fauchon du Moyen-Orient)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신들만의 능력을 펼쳐 보였다. 그들의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드러커는 사각형의 릴산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그레피즘을 시각화하는 프로토 타입과 직조 타입을 제작하고 색채의 조화를 선보였다. 현대의 미적 감각에 제대로 부응하는 드러커의 기술이 칭찬받는 사례들이다.

동구로의 개방

드러커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소련 연방의 공화국)을 포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칠레에 이르기까지 30개국 이상에 프랑스의 감수성을 가득 담은 디자인에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안락한 의자를 수출하고 있다. 또 드러커는 뛰어난 등나무 가구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재현해낼 뿐만 아니라, 제품 모델들의 유지와 수리도 보장해주고 있다. 드러커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동구 시장들과 특히 러시아 시장에도 서서히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 드러커는 전통 있는 브랜드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쇼인 살롱 메종 앤 오브제(Salon Maison & Objet)를 통해 해마다 새로운 모델과 컬러들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폴란드 가문인 시작한 작은 공장이 동구 국가들의 국경을 벗어나서 그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인 셈이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알릭스 드 디브(Alix de Dives) 사진 장 마크 팔리스(Jean-Marc Palisse)



4



5



6



7

1 릴산 플레이트로 엮어 짠 의자. 2 모델들의 내구성을 위해 등나무 줄기로 제작된 부분들은 케빈에서 니스로 칠해진다. 3 릴산 플레이트는 아주까리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만들어져 단단하고 안정적이다. 4 카페를 위해 제작된 적포도주색과 녹색 모티브의 팔걸이 의자 시리즈. 5 필립 스타크가 디자인한 로열 몽소(Royal Monceau)의 팔걸이 의자. 6 프랑스와 샹소가 디자인한 그르넬(Grenelle) 팔걸이 의자. 7 메종 드러커의 다채로운 의자들이 전시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시크릿 뮤지엄〉전은 명화들을 디지털로 재현해 새로운 볼거리와 상상력을 안겨주는 전시다. 모네의 일몰에서 빛을 직접 관찰하고, 렘브란트의 명암 속으로 들어가 보고, 들라크루아의 화려한 색의 향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1

1 전시장은 선, 색, 빛, 그림자 등의 테마로 나누어 있다. '색'을 테마로 한 전시장의 모습. 2 전시장의 그림들은 모니터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대해 보여준다. 3 색채에서 열정과 격렬함이 느껴지는 들라쿠르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a liberté guidant le peuple, 1830). 4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Les Ambassadeurs, 1533). 5 하석준 작가의 작품.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이 9월 22일까지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 열린다. 서구미술사의 걸작들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전시인데 보여주는 방식이 특이하다. 기존의 전시들은 이른바 원화를 배치하고 이를 일정한 거리에서 눈으로만 감상하게 한다. 흰 벽을 배경으로 걸린 '오리지널' 작품을 숨을 죽이며 주의 깊게 관람하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전시다.

전시장에는 복제된 사진과 영상이 원화를 대신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들이고 복제된 것들이다. 모니터는 원화를 부분적으로 확대해가며 구석구석 보여준다. 마치 확대경으로 요묘조묘 뜯어가며 보는 느낌으로, 기계적 눈에 의한 새로운 감상법을 제시한다. 기획자의 의도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부터 빈센트 반 고흐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사에 혁신을 이끈 회화들을 고해상도 디지털로 재현해 관객에게 소개한다는 것.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3D, 음향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작품의 디테일과 숨은 의도를 담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른바 입체적으로 미술사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시크릿 뮤지엄>전은 미술의 핵심 테마인 선, 색, 빛, 그림자, 시간, 원근법, 마티에르, 감정 등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섹션마다 주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4~5점의 디지털 명화들을 선택해 보여준다. 각 작품들은 개별 작품의 특성에 맞는 고해상도 모니터, 대형 멀티스크린,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3D 멀티스크린 등의 다양한 디지털 방식에 힘입어 등장한다. 더불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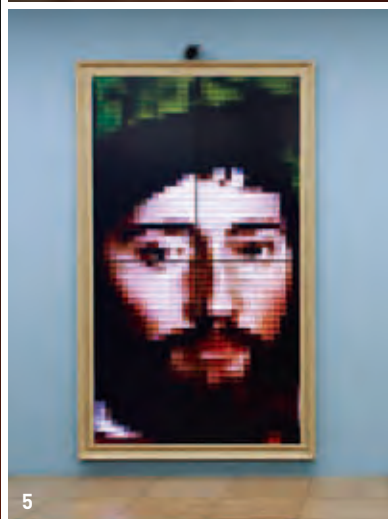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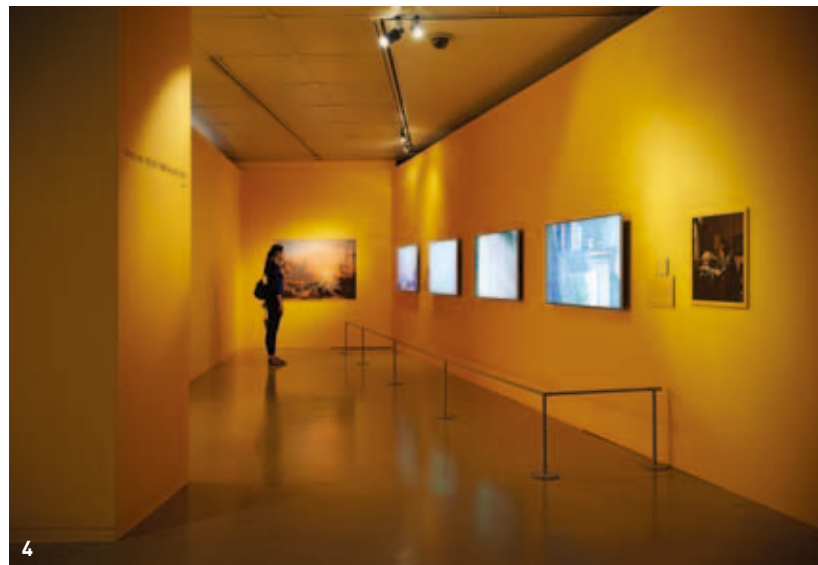
1



2



3



4

의 이해를 돕는 보조영상과 텍스트 그리고 영화의 의미를 재해석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만테냐의 예수상이나 조각상으로 구현한 라 투르의 그림, 그리고 복원전문가의 손을 거쳐 재현된 고흐의 마티에르 기법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이 전시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새롭게 접목시켜 이룬 미술관 전시교육으로서의 훌륭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기존 전시가 특정 작품들을 감상하게 해준다면 이 전시는 마치 미술사 책을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몸으로 체득하게 해준다. 미술을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척 유익한 미술사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미술교육이나 미술관의 전시 형태도 점차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시크릿 뮤지엄〉전은 디지털 영상기술을 통해 명화를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점과 관객에게 명화를 보는 색다른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그러니까 관객은 눈앞에 놓인 작품을 일방적으로 만나고 접하는 게 아니라 그림 속 사물의 의미, 화가의 의도 등 작품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미술 여행의 길잡이로서 디지털 영상을 만나게 된다.

또 영화의 주요 부분들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각 장면에 부합하는 음악이 작품의 의도를 부각시키며 작품이 가진 미학적 포인트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기획자의 안내에 따라 그림의 세세한 부분인 균열 상태나 붓 자국 등까지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림에 담긴 의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다.

이번 〈시크릿 뮤지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 영상에 포함된 ‘사운드’다. 이 사운드 역시 작품을 통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핵심적 장치다. 예를 들어 터너의 〈비, 증기, 속도〉란 작품은 비가 오는 날, 증기를 내뿜으며 달려오는 기차를 순간적으로 포착해 그린 그림인데,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모니터로 보여주는 한편 빗소리, 바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서 마치 그 장소에서, 이 그림 속에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전시를 기획한 주최 측은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시크릿 뮤지엄〉전이 디지털 영상을 통해 이 시대에 명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명화에 어떤 요인이 있기에 유명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회화 속 여행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분명 뛰어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즉 놀라운 광학기계,

1 빈센트 반 고흐의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La nuit étoilée, Arles, 1888). 2 원근법을 표현한 구조물. 3 모네의 그림을 통해 자연의 빛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려준다. 4 전시장에는 복제된 사진과 원화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보여주는 모니터가 함께 전시되어 있다.

영상, 모니터, 음향기기 등의 도움을 받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술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전시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문점은 남는다. 원화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전시 이른바 영상으로 복제해서 이를 대신하는 전시 체험과 실제 작품 앞에서 그 작가만의 손놀림과 몸짓을 상상하는 것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디지털 영상의 도움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또한 작품 주변을 거닐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체험 및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감상이 그림과 관객 간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부분인지, 등이 궁금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명화를 둘러싼 도상적 의미나 여러 미술사적 지식을 숙지하는 것만이 미술 작품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미술 작품의 감상조차 정보의 축적이나 지식의 양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겠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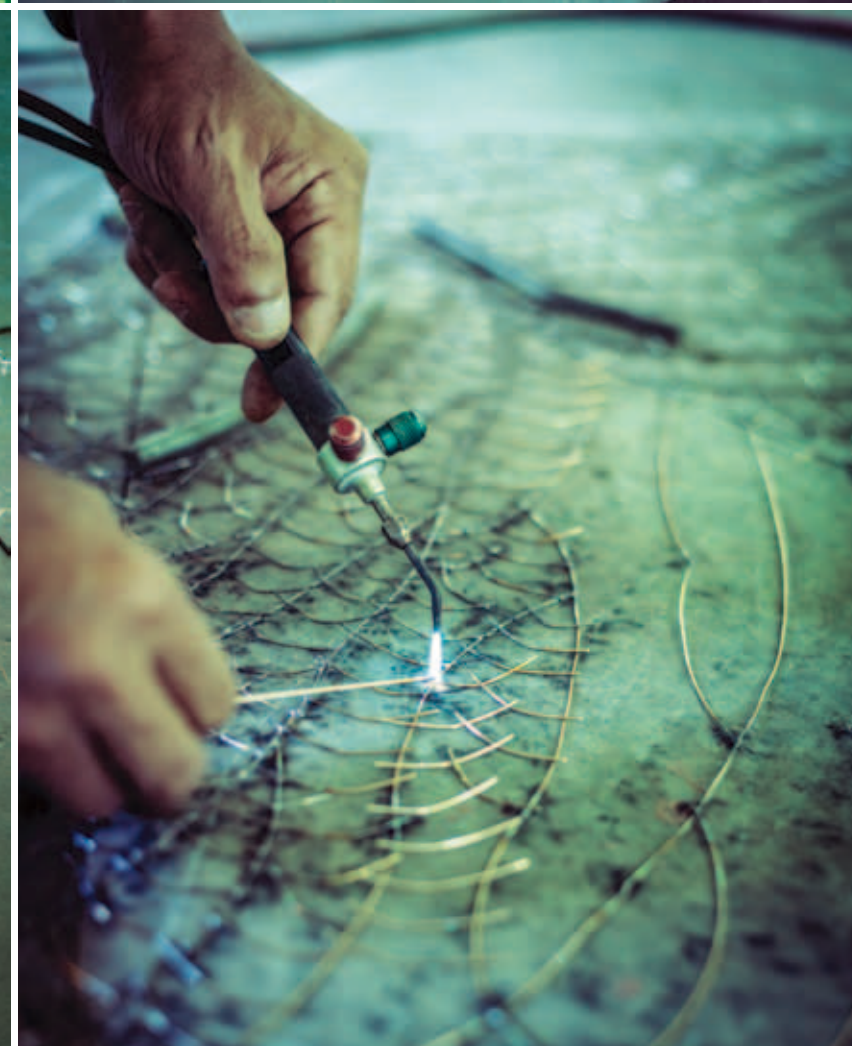
에디터 신정희 글 박영택(경희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은숙



처사접물(處事接物), 사건을 만들고 싶다는 선(線)의 작가

대전 시내를 벗어났는가 싶더니, 돌연 차 한 대 겨우 지나는 좁은 시골길 끝에 그가 서 있었다. 사진 찍을 요량에, 말쑥한 옷으로 갈아입자고 하자, “뭘 포장하려고? 이 시간엔 으레 이려고 있는 게 난데”라며 한사코 고집을 부린다. 얇은 철사 몇 가닥을 구부리고 잘라, 불의 힘을 빌려 세상에 말을 거는 그의 일상을 깨고, 그에게 말을 걸어봤다.





바다 건너까지 소문난 작가라기보다 말투며 행동거지며 영락없이 농부라고 해야 어울릴 그에게 도시 속 시골에 '은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은둔? 무엇으로부터 숨는다는 뜻인데, 숨는 순간 숨으려는 의지가 들킨 것이니 숨었다고 할 수 없죠.” 충청도 사투리에, 치장이나 격식이라곤 손톱 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가 명쾌하게 본질을 꿰뚫어버린다. 이럴 때 질문을 던진 사람은 통쾌하다.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가 얼마나 막힘 없이 질주해왔는지 설핏 알 수 있었다.

“여기가 고향이죠.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금의환향은 못했고, 무명웃 걸치고 왔으니 그러면 무의환향인가?(웃음)”

웃음도 참 짓궂다. 요즘 들어 과음이 잦아 술자리가 재미 없어서 사람들 모인 자리에는 도통 나서지 않게 됐으며, 농을 던진다.

그의 일과는 무미건조하다. 작업실이라기보다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다면 단박에, “철공소치곤 단출하네” 할 판인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용접을 하는 일이 일상의 전부다. 물론 공주대 예술학과 교수이니 출강을 위해 종종 작업실을 비우기도 한다. 하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작업실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모양이다.

서울대 조소과를 나온 그는 '토종'이다. 그 흔한 유학을 안 다녀왔다는 뜻이다.

“유학... 미국에 가서 배울 게 있다면, 여기서 왜 못 배우나 싶어 안 갔죠.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놈이 하면 한국 거지 뭐, 하는 생각을 했다고나 할까? 흐흐. 실은 유학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간겨.”

그 시절, 한국 화단은 '한국적인 것', '우리 것'에 대한 통렬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 암울했던 시대 상황과 맞물려 민중 미술의 불길이 일었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앞다투어 동양화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자기 합리화로 유학 포기의 정당화(?)에 성공한 그가 택한 길은 '독학'이었다.

후배들을 사주(?)해 미술 관련 원서가 많던 서강대와 이화여대 도서관에 빛을 지며 지냈다. 연조가 깊은 그의 독서편력은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를 회상, 아니 설명하던 그의 입에서 '별들'이 쏟아졌다. 모더니즘의 성패에 대한 석학들의 논쟁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일찌감치 한 방을 날리고 노년을 유유자적했던 마르셀 뒤샹의 영민함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현학적이고 전문적인 미술 분야의 담론은 여기에 정확하게 옮길 자신도 없고, 독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생각한다.

지독한 독서와 고민 끝에 '모더니즘의 결론은 표면성과 대상성이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예술은 결국 물건이죠. 해서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고자 했어요. 처음엔 그게 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회화는 조각이 되려고 하고, 조각은 풍경을 지향하는 요즘 미술계를 지켜보며 생각이 바뀌었죠. 회화도 조각도 아닌, 아니 둘 다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된 겁니다.”

작가 정광호를 대표하는 작품은 붓이나 물감이 아닌 철사와 구리줄을 용접해서 만든 꽃잎 혹은 나뭇잎, 향아리, 천자문 등이다. '덩어리'를 지양한 그는 '선'을 선택했다. 왜였을까? 그의 작품은 카메라로 담기조차 불편하다. 워낙 많은 선의 집합이라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판재 같은 덩어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무엇이고, 스스로 발언하고 있죠. 그런 물성을 작가가 인정하고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말하지 않는 소재를 원했고, 철사를, 즉 면이 아닌 선이 (회화도 조각도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일 수 있게 하려는) 제 의도를 반영하기에 좋은 소재라 선택한 거죠.”

사람들은 '달향아리'를 닮은 그의 작품을 보며, 한국적 소재를 다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에게

작가 정광호를 대표하는

작품은 붓이나 물감이

아닌 철사와 구리줄을

용접해서 만든 꽃잎 혹은

나뭇잎, 향아리, 천자문

등이다. '덩어리'를 지양한

그는 '선'을 선택했다.

서 한국적인 것을 찾자면, 그건 그가 '선'을 사용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는 '서양의 빛은 면을 만들어내는 평붓이고, 동양의 빛은 얼마든지 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도구'라고 했다.

여기서 그의 작품 '항아리'를 예로 들어보자. 관객은 그가 철사를 자르고 용접해 붙인 이 작품을 보면서 항아리를 연상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항아리일까? 항아리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항아리는 결코 아니다. 항아리는 비움의 철학으로 대상을 받아들인다. 물이 찰 수도 된장이 담길 수도 있게 속을 비운 것이 항아리다. 하지만 그의 항아리는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세상과 관통돼 있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그저 스스로 비어 있지도 차 있지도 않을 뿐이다. 피부로 숨을 쉬어 안과 밖을 은밀하게 내통하는, 우리가 아는 항아리와는 본질이 다르다. 사람들에게 도자기의 실체 없이 도자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의 '오랜 농담'은 통했다.

평단은 그의 작품을 '비(非) 조각적 조각(non-sculptural sculpture)'이라고 명명한다. 그의 의도가 적중한 것이다.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그의 작품을 두고 '입체적이면서 동시에 평면적'이라고 평했다.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에 처음 진출해 매진에 가까운 성과를 올렸고, 독일 뮌헨의 저명한 토마스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제의받는가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어에도 초대받았으니, 유학 포기를 정당화한 뒤 택한 그의 독학은 성공했다.

여기서 그의 작품을 '오랜 농담'이라고 말한 건 그의 작품 세계가 한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서다. 작가 입장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작업의 패턴에 싫증이 나진 않는지 물었다.

“지난 94년부터 같은 양식의 작업을 발표했죠.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는냐고요? 자꾸 해달라고 하니깐요. 허허.”

현학적 취향을 농으로 적절하게 물 타는 그가 이제까지의 작업이 오브제란 '명사형'이었다면, 앞으로의 작업은 만들기 즉 '동사형'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예로 든 한자성어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처사점물(處事妾物)'. 점물이 대상성이라면, 처사는 타자성이라고 해석한 그는 자신의 작업이 점물에서 처사, 즉 사건을 만드는 동사형으로 바뀔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목조나 석조에서 중요시된 전통적 양감이나 입체감보다 선의 요소를 최대한 살려, 일가를 이룬 그가 그럴 내일의 세계가 기다려진다.

그의 항아리(Pot) 작업은 사람과 닮았다. 사람이 입과 배설기관을 통해 섭취와 호흡으로 자연과 내통하듯, 철사 혹은 구리의 휘어질 듯한 선으로 구성된 그의 항아리 역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 그의 작품이 그런 소재와 형태를 유지하게 된 연유는 장르에 천착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담론, 즉 철학적 사유의 힘이었다.

그의 철학과 마주하며, 뭉가에 한 방 맞은 느낌이 든 건 사유의 끝에 '노동'이 있어서였다. 남루한 차림새로 시골 교실에서조차 퇴출됐을 작은 의자에 앉아, 일상을 등진 채 반딧불이 같은 불꽃으로 철사를 자르고 이어 마치 거추장스러운 표면을 벗어던지고 실핏줄로 남은 낙엽 같은 나뭇잎을 만드는 행위는 분명 노동, 아니 중노동이다.

“철사를 하도 끊어냈더니 내 관절이 분절됐어요. 허허.”

작품보다 그의 두툼하고 투박한 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건 그 순간이었다. 작업실 옆 텃밭 고추농사도 직접 짓느냐고 묻자, “고추라도 있어야 막걸리 안주 삼지” 한다.

작가님, 텃밭 고추 다 떨어지기 전에 막걸리 한 되 받아, 다시 찾아뵙지요. S

글 최태원 사진 왕태균



청매실을 불기운을 물리치고 독을 풀어내라

담장을 넘어 온 나무 가지에 무성한 잎과 함께 열매가 달리었다.
만물이 추위에 몸을 사릴 때 여린 꽃을 피워 선비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일깨워 주었고,
날이 더워지면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푸르고 단단한 열매를 주는 나무. 꽃은 매화(梅花)이고,
열매는 매실(梅實)을 가진 이 나무가 바로 매실나무다. 청매실, 이 시고 단단한 한 알에 여름에
필요한 기운이 모두 깃들었으니, 여름의 불기운을 물리치고 독을 풀어내라.





여름 상차림에 올리라

겨울이 시작되면 겨우내 상에 올릴 김치를 고루 담그듯, 여름이 시작되면 서둘러 매실 효소를 담근다. 시장에 나가 상처 없이 단단한 청매실을 한 자루 골라 깨끗이 씻어 표면을 충분히 말린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더운 날씨에 쉬 곰팡이가 일까 걱정되어 예부터 매실 효소를 담그기 전에 말리는 것이 아낙들의 불문율이다. 소독한 항아리에 설탕과 매실을 쪄켜이 담아 발효한다. 처음 한 1주일 정도는 밀봉한 끈을 풀러 하루에 한두 번씩 뒤적여주며 산소를 넣어주면, 효소가 증가된다. 100일을 묵혀가며 매실 액이 서서히 불어나는 것을 보면 아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항아리에 담긴 것은 열매요, 여인의 얼굴에 핀 것은 매화라.

매실은 효소뿐만 아니라 술, 장아찌, 절임, 김치, 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주를 통해 아낙의 상차림을 풍성하게 한다. 입맛이 없다 싶으면 매실 장아찌에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밀반찬으로 내고, 갈증이 일면 매실 액에 얼음을 동동 띄워 차로 낸다. 나물 무칠 때와 고기 재울 때 매실 효소를 넣으면 감칠맛 내는 천연 조미료 역할도 톡톡히 한다. 그러나 매실은 어디에 올리고 무엇에 섞어도 그 독특한 향과 맛은 은은히 드러내니, 그의 전신인 매화와 꼭 닮지 않았는가.

두 가지 매실 주먹밥

왼쪽) 일본식으로 발효한 우메와 한국식 매실 장아찌를 씨를 제거한 후 따로따로 다져 준비한다. 각기 밥과 함께 섞어 가면서 간을 맞춘다. 먹기 좋은 크기로 뭉쳐 접시에 담아 낸다. 피크닉 도시락으로 이용하면 새콤한 발효 성분 덕분에 신선한 맛이 오래 유지된다.

매실을 곁들인 연어 글라브라스

오른쪽) 설탕 반 컵과 소금 1컵 반을 섞은 것을, 뼈를 발라낸 연어살에 앞뒤로 뿌리고 이틀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간이 배게 한다. 물에 잘 씻은 뒤 물기를 닦고, 달과 타임 등의 허브를 다져 한 면에 발라 하루 정도 향이 스미도록 냉장고에 보관한다. 얇게 저미어 접시에 깔고 레몬 껍질과 잘게 자른 매실 장아찌와 새콤한 매실 액을 뿌려 낸다. 연어에 매실을 돌돌 말아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새롭다.



기운을 북돋고, 배 속을 편안히 하다

매실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이미 1596년, 중국 명나라 시대에 간행된 <본초강목> 그리고 1610년에 허준이 지은 의서 <동의보감>에 실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매(烏梅)는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애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여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는 다'라고 소개돼 있는데, 오매란 청매를 훈증하여 까맣게 된 것으로 예부터 약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본초강목>에서도 오매를 두고 '간과 담을 다스리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로 해소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 뱃속의 벌레를 없애며 물고기의 독을 없앤다. 음식으로 인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위장병을 멈추게 한다' 등 그 효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매실에 함유된 구연산과 카테킨산 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속속 증명이 되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집집마다 동리마다 매화나무 한두 그루 심어 두었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이면 열매를 따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귀한 음식이 늘 거기에 있었던 것. 선조들의 지혜가 대물림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가늠할 따름이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푸드아트 오정미 어시스턴트 양정은 캘리그래피 이규복 도자기 민승기(www.minseunki.com)



물속에 맑은 아침 찾아든다

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터트리니 지나가던 바람이 귀 기울이고, 숲이 숨죽인다. 여름에 듣는 소리 중 가장 쾌활한 소리가 물소리 아니던가. 골짜기에 물 가득한 여름 숲 속에 맑은 아침이 찾아든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여황산동리 숙석경루(與黃山東籬宿石瓊樓)
-김정희(金正喜)

入室常疑雨(입실상의우) 이 집에 들면 항상 비 오는 듯
無煩繪水聲(무번회수성) 번거롭게 물소리 그럴 것 없다네.
晴林朝合爽(청림조합상) 맑은 숲엔 아침이 상쾌하고
陰窅夜生明(음학야생명) 그늘진 골짜엔 밤에도 밝다네.
鄭重名山業(정중명산업) 정중한 명산의 고즈넉한 별채
飄然不世情(표연불세정) 표연한 그느낌 세상 맛 아니라네.
松風涼到骨(송풍량도골) 솔바람 서늘히 뺏속으로 스며
詩夢百般清(시몽백반청) 시상도 모두가 깨끗하다네.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산뜻한 타입의 순행클렌징오일과, 풍부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마일드하게 제거하는 촉촉한 순행클렌징폼이 맑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한다.





수>(睡起)
-서거정(徐居正)

簾影深深轉(염영심심전)
荷香續續來(하향속속래)
夢回高枕(몽회고침상)
桐葉雨聲催(동엽우성취)

말그림자는 깊숙이 옮겨오고,
연꽃 향기는 속속 풍겨오는구나.
편안한 잠자리에서 깨어나니,
오동잎이 빗소리를 재촉하는구나.

사용 후 완벽한 커버력과 탱탱한 탄력을 느낄 수 있는 설화수 퍼펙팅쿠션은 잡티 뿐 아니라 미세한 주름까지 메워주고 촉촉한 보습력은 오래 지속된다.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SPF 50+ / PA+++)을 갖춘 멀티 쿠션 파운데이션





불모지라서 캐낼 보석이 많은 강원도의 소리

길은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다. 민초의 애환이 깃든 노래도 길을 따라 흐른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배회하며 진화한다. 하지만 예각의 산들이 파도치는 강원도의 험한 길은 사람의 발길도 노래 길도 가로막았다. 첩첩산중, 그곳의 노래는 원형을 간직한 채 소(沼)에 고인 물처럼 그렇게 깊어졌다.

강원도와 국악의 연결고리는 아리랑이다. 사람들은 안다. 노래를 흥얼거릴 순 없어도 '정선 아리랑'의 존재 정도쯤은. 정선 아리랑의 원형이 평창 아라리에 있음을 미탄면에서 확인한 건 지난해 이 지면을 통해서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그 수가 50종 3천여 수에 달한다. 천 갈래 만 갈래 길을 따라 변주가 반복돼, 이종이 늘어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강원의 아리랑은 투박함을 멋으로 삼는다. 땅의 기운이 사람의 성품에 서렸듯, 소리에도 영향을 끼친 모양이다. 바로 그 강원 소리의 실체가 궁극하던 차에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상설무대가 있다가에 길을 나섰다.

한때 연주 장소가 원주강원감영이라한다. 원주감영이라면, 태조에 설치돼 고종 연간에 폐지될 때까지 강원도의 정청업무를 관장하던 곳이 아닌가. 조선 500년, 그 긴 세월 이런저런 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울었을 그 터에서 다시 우리 국악기의 향연이 펼쳐진다니, 이런 걸 두고 '제격'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강원의 산들을 오른쪽 혹은 왼쪽 어깨로 흘러보내고 찾아간 원주강원감영에서 만난 이는 피리와 태평소 연주자이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권용석 씨다.

“저희 악단이 99년에 창단됐으니 다른 도에 비해 출발이 늦은 것도 있지만, 정선 아리랑을 제외하곤 관 차원에서의 국악 콘텐츠 개발이 덜 이뤄진 편입니다.”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향유가 늦게 시작된 이 땅의 공연 문화가 불모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강원의 민요는 지리적 특성 탓에 지역 간 교류가 적어, 활성화가 덜 된 점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유로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니 문화의 변방이었다는 아픈 사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후발주자로서 미개척지에서 발굴을 해야 하기에 탐구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단원들도 30~40대의 젊은 연주자들이어서 의욕이 넘치거든요.”

이제 강원도는 준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서울에서 악단이 소재한 춘천까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근거리다. 그러다 보니 많은 단원들이 경기도 권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남양주에서 출근하고 있다는 거문고 연주자 구연모 씨. 출근하는 자신에게 “엄마, 아리아리 아리랑 하러 가?”라고 재롱을 떠는 세 살배기 아이를 둔 엄마이자, 올해로 9년 차가 된 단원이다. 거문고는 손가락이 너무 길면 줄에 힘이 전해지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흥미로운 얘길 전해준 그에게 신생 악단의 장점을 물었더니,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점”이라며, “화합이 잘 되고 단원들의 생기가 넘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얼까?

“우선 규모가 작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행정적 지원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죠.”

권용석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더니, “전용 극장이 있었으면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긴 여기저기서 국악 전용극장 건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도립 국악관현악단이 마음껏 공연할 전용 극장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원주강원감영 공연은 지휘자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그래도 무대의 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 벽지를 다닐 땐 연주자로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악기와와의 조화를 위해 소리가 큰 태평소 연주자가 옷을 걸어놓고 그 뒤에 숨어 연주를 하기



1 강원도의 국악계는 미개척지다. 저 북이 울려 잠자고 있는 강원의 소리를 깨울 수 있길 기원한다. 2 박(拍)은 나무 조각 6개를 엮어서 만든 타악기지만, 연주보다는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궁중 음악에서 시작할 때 한번, 끝날 때 세 번 쳐서 시작과 끝을 알린다. 박을 잡은 사람은 서양음악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 연주자이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석 씨. 그를 비롯한 젊은 연주자들의 열의와 탐구심이 악단의 미래를 밝게 한다. 2 임균의 행차 때에도 악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이 조선의 문화였다.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상설공연인 '여민락'은 그 소리를 백성에게 들려주는 노력의 일환이다. 3 연주자의 수가 다른 도립 악단에 비해 적다는 것이 아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4 고운 한복의 지태가 우리 소리와 만나 아름다운 극치를 이룬다. 5 박을 들고 있는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의 3대 지휘자 노부영 씨.

도 한다니, 그 고충을 알 만하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이 꼭 불편만 주는 건 아닌 모양이다. “훌륭한 무대가 관객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산간벽지에서의 공연에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햇수로 3년째 연주에 앞서 박을 치고 있는 지휘자 노부영 씨는 척박한 강원 국악계의 현실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고교는 물론 국악과가 있는 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얘기가. 교육기관이 없다는 건 ‘뿌리’와 ‘미래’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악단과 지휘자는 강원 국악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정신 아리랑 말고도 강원도에는 부녀요와 동요 등 놀이와 노래가 잘 보존된 토속 민요가 많죠.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작업도 하고 있고요. 같은 피나리조 토리라고 해도 산 하나 건너가 다른 것이 강원도입니다. 영서와 영동 지방의 기질과 정서가 많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 민요대전’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다른 도립 국악관현악단보다 상대적으로 연주자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공연 때마다 비상임 연주자를 초빙해야 하는 처지라면, 도립의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이다. 악단도 마찬가지다. 해야 하는 연주가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연주도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해야 하는 공연의 질도 높아지리라 믿는 당연한 일이다.

오후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자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 상설공연의 명칭은 ‘여민락(與民樂)’, 백성에게 들려주는 소리다. 관악합주인 ‘함녕지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정대석 작곡의 현악합주곡 ‘일출’로 이어지더니, ‘수룡음’을 지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와 강원 경기도의 민요인 ‘매화타령 양산도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으로 흘러, 관악합주곡인 ‘시나위’로 끝을 맺었다.

거문고란 악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묻자, “외람되지만 삶 그 자체입니다”라고 답하는 당찬 젊은 연주자가 있는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 부디 강원도에 국악교육기관이 생겨 이들의 뒤를 잇는 후배를 길러내길 기원해본다. S

글 최태원 사진 왕태균



강원도립 국악원

강원도립 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8월에 창단돼, 노부영 상임지휘자와 단원들이 연간 약 60여 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창조적 조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순회·초청 공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강원 도민과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도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립 국악 단체들과 매년 교류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소통과 교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상설공연인 ‘여민락’은 현대적 극장의 개념을 벗어나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내 각 지역의 전통가옥과 유형문화재 등 옛 건축물에서 음향·조명 등 현대적인 기계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공연을 시도하고 있다.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들은 전통문화의 원형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인 ‘수제천’, ‘천년민세’, ‘수룡음’ 등을 연주하고 있다.



<국악기행>에 소개된 동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7/8월호 <국악기행>은 QR코드를 찍거나,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함녕지곡’, ‘일출’, ‘가야금산조’ 연주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에 담긴 고유의 정서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세요.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차 한 잔에 담긴 검소함

우리가 즐기는 차에는 물질의 풍요보다 정신의 풍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의 맑은 정신이 깃들어 있다.



차의 정신, 작은것에서 큰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모름지기 금서가 홀로 따르니 / 작록이나 벼슬이야 어디다 쓰리. / 벼슬 던져 어진 아내, 말을 따르니 / 가마를 맨 효성스러운 자식도 있네. / 보리 짝어 말리는 땅 바람이 불고 / 물이 흘러 고기 못에 넘실대누나. / 언제나 저 뱀새를 생각하노니 / 한 가지만 있어도 몸 편하다네.’
우리 차 문화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일지암을 건립한 초의선사가 쓴 시 중 일부다. 뱀새가 제 몸을 깃들이는 데에는 일지, 즉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한데 나뭇가지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승 다산 정약옹과의 문답을 통해 왕공, 귀족, 여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도를 잃고 나면 젊음이 스러짐과 동시에 마음도 빈 쪽정이가 되어 허둥거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도(茶道)’의 개념을 내세워 차 마시는 일을 인격을 닦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차를 위해 준비하는 물을 너무 오랜 시간 끓이거나 찻잎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차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듯 차고 넘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화로운 것이 아니다. 차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청빈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굴산 이유원은 ‘다구를 제외하면 화분 하나 없는’ 다실에서 차와 늘 함께하는 생활을 즐겼다. 그는 다른 꾸밈 없이 담쟁이 넝쿨로 자신의 집 벽에 무너진 담을 가리고 연못을 파서 물을 길어 한가롭게 차를 마셨다. 우리의 선인들은 물질의 풍요보다 정신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청빈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노래했다. 차를 즐기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상의 궁핍함 가운데서도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찻자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한 잔의 차를 마시기 위한 과정에는 단순히 마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신적 기쁨, 인생의 향기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고요하고 그윽한 그 행복 속에서 차고 넘치는 다기나 화려한 다실 풍경은 중요하지 않다. 연초록 봄빛처럼 그윽한 초록의 향기는 찻잔 속에서 어김없이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름을 위한 찻자리, 레드파파야 블랙티

한여름의 더위가 더욱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한 박자 여유로운 템포로 일상을 이어 나가고 싶다면 레드파파야 블랙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레드파파야 블랙티는 인도산 고급 홍차에 파파야, 로즈힙, 장미꽃의 맛과 향을 곁들인 과일향 홍차다. 살짝 익은 복숭아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향이 몸과 마음을 향기롭게 물들인다. 로즈힙, 파파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박혜리공방(02-541-6480),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갤러리(02-733-9041) 참고 문헌 <역사 속의 우리 다인>(찬병식, 이은아침),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정민, 김영사)



왼쪽 나뭇잎 모양 접시와 나무 장반 모두 한국공예진흥원갤러리, 사발은 정소영의 식기장. 오른쪽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향을 선사하는 레드파파야 블랙티, 파란 모시는 박혜리공방, 백자 접시와 찻잔은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차시(茶匙)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갤러리.

지친 피부에 선사하는 휴식

바캉스 후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가꾸고 싶다면 충분한 영양 공급과 미백이 해답이다.



옛 궁중의 여인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별다른 화장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천연 미용법을 찾아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 애썼다. 특히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피부 미용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이때 후궁들이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 미용법을 연구했는데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이 '쑥 목욕'이다. 쑥은 '애엽(艾葉)'이라고 하는데 쑥 목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이 생길 뿐 아니라 피부를 탱탱하게 해줘 주름 예방 효과도 있다. 또 여드름, 습진, 각종 피부 문제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쑥 목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볶은 소금이나 죽염, 쑥을 담가 우려낸 물로 하반신 목욕을 하거나 헝겊주머니에 말린 쑥을 넣고 욕탕 물에 담가 폭우려낸 뒤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된다. 쑥 목욕물에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은은한 쑥 향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 쑥 목욕은 현대에 와서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바캉스철이 되면 더욱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쑥이 자외선에 지쳐 탄력감을 잃은 피부에 활기찬 탄력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휴가지에서 얻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땀띠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미온수로 우린 쑥 물에 목욕을 시키면 땀띠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옛 여인들의 미용법에 에프터 선케어의 비법이 담겨 있는 셈이다.

현명한 보디케어를 위해서는 목욕 뒤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해야 한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동안 피부 속 수분이 달아나기 때문에 자칫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목욕을 끝낸 뒤에는 건조해진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에센스를 꼭 챙겨 발라야 한다. 특히 햇빛에 피부가 검게 그을렀다면 피부 미백을 돕는 에센스로 보다 밝은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좋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박혜리공방(02-542-469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02-733-9041),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참고 문헌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정지천 중앙생활사)



외부의 열 자극에 의해 칙칙한 피부를 밝게 가꿔주고 투명함을 선사해주는 자정미백에센스.

어두운 피부에 선사하는 밝고 화사한 선물

자정미백에센스는 외부 열 자극에 대한 피부의 힘을 키워 칙칙한 피부를 밝게 밝혀주는 한방 미백에센스다. 자정삼백단이라는 한방 성분이 자외선, 적외선, 노화로 인한 피부에 힘을 키워주어 밝고 환하며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자정미백에센스로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설화수 스파를 찾아가 '설안'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자. 미백 관리뿐만 아니라 설화수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의 섬세한 손길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 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연극·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황후의 비극적 삶 뮤지컬 <엘리자벳>

뮤지컬 <엘리자벳>은 지난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녀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최고의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더욱 기대감을 높여준다. **에디터 선정희**



지난해 상반기 공연 예매 1위, 더 뮤지컬 어워즈 역대 최다 8개 부문 수상 등으로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뒤흔들었던 유럽 대작 뮤지컬 <엘리자벳>이 막을 올린다. <엘리자벳>은 실존했던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일대기에 '죽음'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더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이 답답한 황실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유를 갈망하던 모습을 거부할 수 없는 초월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 '죽음'과 사랑에 빠졌다는 설정으로 되살려 극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준다. 또 세계적인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웅장한 음악과 어우러져 개성 강한 캐릭터들과 실력 있는 앙상블들의 하모니가 매력적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호화로운 궁전을 그대로 무대 위에 재현했다. 2중 회전무대와 3개의 리프트, 11미터에 달하는 브리지, 황실의 결혼식, 무도회, 왕의 대관식 등 화려한 장면들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지난해 완벽한 호흡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준 두 주역 옥주현과 김준수가 다시 한 무대에 서는 것이다. 두 배우는 이례적으로 지난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한 작품으로 남녀주연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두 배우의 열연과 앙상블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감동의순간이 재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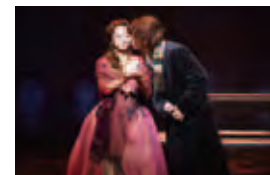
일시 7월 26일~9월 7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1577-6478 **관람료** R석 14만원, S석 12만원, A석 10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D석 3만원

뮤지컬 <애비뉴 Q>



브로드웨이의 악동 콤비인 로버트 로페즈와 제프 맥스가 탄생시킨 <애비뉴 Q>는 최근 10년간 가장 센세이션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히트작이다. 누구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고민과 인간의 본성을 유쾌하게 풀어내어 주목을 끄는 작품이다. **일시** 8월 23일~10월 6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영국의 대 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원작이다. 격동의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장엄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음악 속에 펼쳐지는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감동적이다. **일시** 8월 11일까지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뮤지컬 <스칼렛 핼퍼넬>



낮에는 화려한 한량 영국 귀족으로, 밤에는 프랑스 공포 정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비밀결사대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두 얼굴의 히어로 '스칼렛 핼퍼넬'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린 작품이다. 18세기 유럽 도시를 그대로 재현해 매혹적인 볼거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일시** 7월 6일~9월 8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뮤지컬 <시카고>



시즌마다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뮤지컬 <시카고>가 다시 돌아왔다. 인순이, 최정원, 성기윤 등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최강팀에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하늬, 실력파 뮤지컬 배우 오진영이 록시로 합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일시** 7월 6일~8월 31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577-1987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콘서트|

천상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판타지 <시라 브라이트만> 내한 공연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 세계의 팬을 거느린 팝페라의 여왕 시라 브라이트만이 내한한다. 우주 여행을 콘셉트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더욱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팝페라 여왕 시라 브라이트만이 4년 만에 돌아온다. 지난 2004년 <HAREM> 첫 내한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달러의 흥행, 70만 명 관객 동원의 쇼답게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 안토노프를 통해 100톤의 장비가 공수되어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번 <DREAM CHASER> 투어는 시라 브라이트만이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우주 여행을 현실로 이룬 감동을 담아 제작한 새 앨범 발매 기념 투어다. 실제로 그녀는 뮤지션으로서 최초로 2015년 우주관광을 앞두고 있다. 시라 브라이트만은 6월부터 11월까지 아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총 6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투어를 뛰어넘는 총 3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최첨단 장비 제작을 통해 달과 우주의 이미지를 생생히 재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으로 시라 브라이트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비롭고 몽환적인 사운드는 물론, 우주여행의 감동을 관객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녀의 대표곡인 'Time To Say Goodbye', 'Ave Maria', 'Nella Fantasia', 'Nessun Dorma'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테마곡인 'The Phantom Of The Opera' 뿐만 아니라 신곡 'Angel, One Day Like This'까지 그녀의 히트곡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념비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 7월 26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6만 5000원, SR석 13만 2000원, R석 11만원, S석 9만 9000원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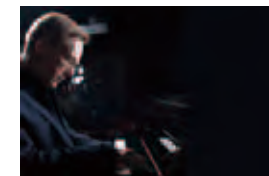
국립발레단은, 이 작품에 생명력을 가져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러시아 발레리노 '마리우스 페티파'의 러시아식 버전을 재해석한다. 고전 발레에서부터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빨간 집시 의상까지 스페인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8월 28~31일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02-587-6181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코리아심포니 188회 정기연주회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자를 졸업하고 현재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4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최희준의 지휘 아래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바르단 마미코니안이 연주를 맡았다.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일시** 8월 22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23-6528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론 브랜튼의 서머나잇 재즈 콘서트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이 '몰'을 콘셉트로 작곡해온 자작곡들을 들려준다. 담백하고 시적인 피아노, 관능미 넘치는 색소폰, 명랑하고 발랄한 몰의 느낌을 표현해줄 두 명의 퍼커셔니스트들과 함께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일시** 8월 24일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문의** 02-888-0650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 5000원, A석 2만 5000원

퀸시 존스 첫 내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슈퍼스타로 올려놓은 3개의 명반과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위해 수백여 장의 히트 앨범을 만들어낸 프로듀서계 미다스, 퀸시 존스, 그가 드디어 첫 내한 무대에 선다.

일시 7월 25일 **장소**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7만 6000원, SR석 14만 3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9만 9000원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꿈의 세계 〈민화, 상상의 나라 - 민화여행〉

민화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옛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엿볼 수 있는 민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민화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유행하던 민간 취향의 그림으로 집 안을 장식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될 목적으로 그렸다. 조선 말기 궁중 회화와 사대부 회화의 영향을 받아 봉건적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유행하였다. 특히 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대로 그리다보니 여러 가지 방법의 표현기법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단순화, 상징화, 추상화되기도 하고 자유 분방한 채색과 화려한 장식이 강조되어 색다른 조형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민화들은 꿈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화폭에 담은 작품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경치 좋은 명승지나 사냥터 그리고 화사한 꽃과 새, 동물들이 뛰노는 숲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호림박물관이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수집해 온 민화 중 순수 전통 민화 80여 점을 엄선해 대중에게는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민화들의 대부분은 다른 전시나 도록에는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강사를 초청해 민화에 대한 문화 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 온 가족이 다함께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소망과 꿈으로 가득한 민화 속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가족애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일시 9월 14일까지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문의 02-541-3525 관람료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2013 Carbon Footprint Gallery in Seoul〉



저탄소 제품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저탄소 제품에 예술적 메시지를 담았다. 원로 민화작가 신문수, 프로젝트 그룹 옆, 김승영, 박은선, 강영민, 오정미 작가 등이 참여했으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8월 7~12일 장소 인사아트센터 문의 02-733-8500 관람료 무료

아르 누보와 유토피아 〈알폰스 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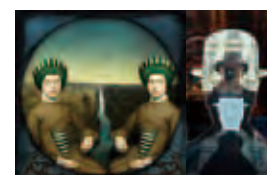
아르 누보의 특별한 표현양식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무하 스타일'은 체코 디자인, 파리 스타일, 비잔틴과 켈트의 전통 장식 등의 종합적인 조화로 아름답고 고혹적이며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다. 일시 7월 6일~9월 20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6273-4242 관람료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1만원, 초등학교생 8000원, 48개월 이상 4000원

〈그림일기: 정가용 건축 아카이브〉 전



작고 2주기를 맞는 건축가 정가용의 건축과 도시, 삶과 문화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전시다. '그림일기'라는 전시 제목은 그의 저서 〈감응의 건축〉에서 발췌했다. 평범한 우리 땅, 사람들의 반복되는 삶에 초점을 맞춰 이어오던 그의 작업은 '건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환기시킨다. 일시 9월 22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2188-6000 관람료 무료

〈넷이서 하나〉 전



〈넷이서 하나〉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제리 울스만과 매기 테일러 부부의 전시인 동시에 국내 작가주의 사진가 1세대로 꼽히는 주명덕, 강운구의 최근작이 함께 소개되는 첫 기획전이다. 아울러 그 거장들의 디지털 향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8월 8~24일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문의 02-418-1315 관람료 무료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제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

본격적인 바캉스철이 되면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러나 누구나 발도장을 찍는 뻘한 여행지 대신 좀 더 색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터. 이런 당신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당신에게, 제주〉는 제주도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여행지를 소개하는 감성 가이드북이다. 〈제주 여행의 달인〉 저자이자 제주도에 정착한 여행작가 부부가 엄선한 비밀스러운 제주의 여행지를 고스란히 담았다. 당신이 두 번째 제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분명 다른 것을 원한다. 뻘한 여행지와 식상한 음식 대신 자신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색다른 곳을 원하기 마련이다. 〈당신에게, 제주〉는 제주를 많이 좋아하고 편애하는 저자들이 지난 4년간 제주를 쏘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소소한 기록이자 남들과 다른 제주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주도만!'이 띄우는 푸른 초대장이다. 시인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갑수 작가는 지난 2007년 봄, 여행의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순간들을 시적인 글과 사진들로 녹여낸 첫 에세이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으로 일상에 지쳐 있던 사람들에게 뜨거운 공감을 지어냈다. 그 후 6년이 지났다. 이제 그에게 여행에 대한 의미도 달라졌다. 작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로 개정 증보해 더욱 넉넉해진 품으로 돌아온 이유다. 제목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을 뜻한다고, 작가는 여행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감수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당신에게, 제주〉 지은이 고선영, 김형호 출판사 품의 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 지은이 최갑수 출판사 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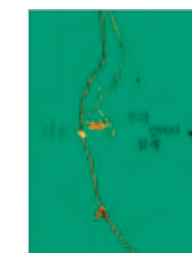
이것이 여성 리더십이다 〈린 인〉



2010년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의 TED 강연 '왜 여성 리더는 소수인가'라는 동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TED 강연에서 못다 풀었던 '여성과 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조연과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추천한다.

지은이 셰릴 샌드버그 출판사 와이즈베리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다 〈우리 얼마나 함께〉



의사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중기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나 늘 고국을 그리며 지냈다. 그 아득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힌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며 다른 산문집에서는 드러내지 않은 그의 일상과 생각을 이 책에서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시인이 되돌아보는 인생의 풍경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가득 담겨 있다.

지은이 마중기 출판사 달

우리 시대 어머니를 위하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1998년 〈중세의 시간〉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으며, 2013 '현대문학상' 수상작가인 김숨이 여섯 번째 장편소설로 독자를 찾는다. 이 작품에서 김숨은 유령처럼 살았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복원해내며 오늘날 '어머니'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평화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은이 김숨 출판사 현대문학

먹을수록 건강해진다 〈하루 한 끼 채식 도시락〉



처음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 레시피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저염 도시락, 고기보다 든든한 채식 도시락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비건 요리 연구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해 건강에 좋은 채식 도시락으로 구성했다. 채식이 좋은 이유와 채식 간식 레시피도 담았다.

지은이 김선희 출판사 미디어윌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잭 더 리퍼>

퍼즐처럼 잘 짜여진 스토리와 서정적 멜로디,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뮤지컬 <잭 더 리퍼>의 공연 관람권을 설화수 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잭 더 리퍼>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8월 중
공연 장소 디큐아트센터
공연 티켓 R석 8장(1인 2매)
*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구 미해결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원작을 뛰어넘는 세기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절묘하게 혼합시켜 2009년 초연 이후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수사관 앤더슨의 사건 보고로 시작되는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사건을 따라가는 극의 형태로 하루 동안 일어난 얽히고 설킨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좇아 살인마를 파헤쳐 나가는 블록버스터 스타일이다.

장기이식 연구용 시체를 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온 의사 다니엘은 시체 브로커인 글로리아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위해 살인마 '잭'과 거래를 시작한다. 죽음과 사랑의 엇갈린 운명과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 그리고 그들을 쫓는 자의 은밀한 동행으로 극은 절정에 다다르고, 진실이 파헤쳐지는 순간 살인보다 잔혹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객을 압도하는 치밀한 스토리는 이 뮤지컬의 백미. 여기에 몸을 들쭉이게 하고 귀에 감겨오는 서정적 멜로디의 뮤지컬 배경음악이 뒤섞여 배우들은, 21세기가 아닌 19세기 런던으로 관객들을 인도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치로 완성도를 높였다. 1888년 런던 화이트 채플린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설계된 2중 회전무대는 현존

하는 무대기술의 총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최상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교한 순간에 시시각각 바뀌어 30개 이상의 장면을 연출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 출연진의 면모도 화려하다. 신성우, 김법래, 이진명, 성민(슈퍼주니어), 민영기, 서지영, 소냐, 이희정, 양꽃님 등 지난 공연을 통해 <잭 더 리퍼>를 빛낸 배우들에 정동하, 이창민(2AM), 강성진, 조순창 등 새롭게 합류한 스타들까지 가세해 최상의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S

에디터 신정희 도움 주신 곳 엠뮤지컬(02-764-7857)



글로벌 한방 트리트먼트의 진수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설화수 제품으로 정성껏
관리해주는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 서울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설화수 스파는 엄선된 한방 성분으로 만든 설화수 제품을 사용해 전문 테라피스트들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 한방비법으로 심신을 조화롭게 해주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해외에서는 홍콩에 입점해 있는 설화수 스파를 이제는 롯데호텔 서울점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다.

설화수 스파는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내면의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의 불균형한 심신을 전통 한방요법으로 치유하는 곳으로 설화향, 세족, 설화음, 설화정(향진포 마찰)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도와주는 의식인 '정(精)', 옥, 호박, 백자, 자음단불, 설화지 등의 전통적인 도구들로 몸속 진액의 흐름을 바로잡아주는 '기(氣)', 전문 테라피스트의 숙련되고 정성스러운 케어인 '신(神)'. 이 세 가지 요소의 어우러짐을 통한 설화수의 상생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고객의 내면과 외면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무엇보다 설화수 스파의 특징은 기존 설화수 제품의 기운에 전통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 인삼의 따뜻한 기운을 지닌 자음생 라인, 미네랄의 찬 기운을 가진 '옥'으로, 방어하는 기운을 지닌 진설 라인은 치유하는 기운을 가진 '호박'으로, 피부 속 수분의 흐름을 지닌 수올 라인은 강력한 정화 기능을 가진 '백자'로 마사지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번 롯데호텔 서울점에 입점한 설화수 스파는 토판염 소금으로 만들어진 '솔트 룸'을 선보인다. 따뜻한 소금의 기운을 통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공간인 솔트 룸에서 관리를 시작해 설화수 스파의 한방 효과를 높였다. 더불어 다함설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호텔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시그니처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리적 특성도 고려했다.

설화수 스파에서의 극진한 케어는 내 피부에 선물하는 최고의 호사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에는 헐리우드 유명 여배우가 롯데호텔 서울점을 방문해 다시 한 번 글로벌 설화수 스파의 면모를 과시했다. S





page 26 | **Quality Life**

<Quality Life> traces the footsteps of Korea ancestors' lifestyles and introduces the cultural heritages hiding there. The summer games will start at the Yudu Water Festival on June 15 of the Lunar Calendar. Korean ancestors had the wisdom to use the heat of summer as a game to play. Learn about the folk customs of summer, including Dongryusudumogyok (bathing and washing hair in the water that flows east) and making five-color strips to wear on the body to ward off the h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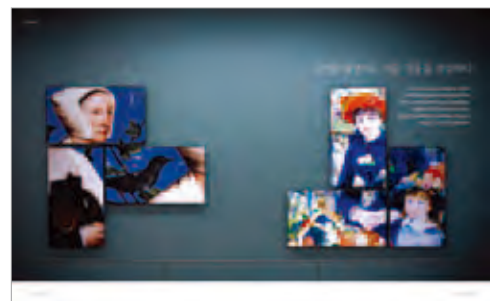
page 40 | **See the Detail**

Seeing in Greater Detail, which introduces the premium spaces of the Joseon Dynasty, visited Guanbangje, the embankment of the Damyangcheon River that flows north along the border of Jeollabuk-do, for this issue. The luxurious forest of Guanbangjerim and Damyang Bamboo Forest, the bamboo craft site of the Joseon Dynasty with a 500-year history, are observed through the eyes of a photographer.



page 54 |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introduces the value of timeless brands and world-class design heritages. This issue guides you to the atelier of Maison Drucker.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885 by Louis Drucker and his wife, it is still weaving beautiful rattan chairs by harmonizing traditional methods and modern beauty. The rattan chairs made with rattan stems have been popular around the world with their cool texture and beautiful designs. The atelier has the ability to beautifully harmonize tradition with modernity.



page 58 | **Art Class**

This issue introduces Digital Masterpiece Odyssey, which was held at the Hanga-ram Design Museum. This is the Korean tour of Revelation of Petit Palais, which is one of the five major museums of Paris, and exhibits the masterpieces of world-class artists such as Monet, Rembrandt and Delacroix, newly interpreted through digital imaging technology.

page 64 | **Meet the Artist**

This issue visits Gwang-Ho Jung, the sculptor who connects thin metal wires to create images of Korean-style jars. Gwang-Ho Jung is currently teaching at the College of Art,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working actively to explore various experimental attempts between painting and sculpture. The jar made by cutting and melting the copper wires one by one starts from one dimension and expands to two or three dimensions to tell us the oriental philosophy that all is void.



page 70 | **The Thesaurus of Sulwha**

This issue presents the culinary significance of Prunus mume, which is the ingredient of Sulwhasoo Renodigm Dual Care Cream. Various dishes are made with Prunus mume, which was widely used by our Korean ancestors as natural medicine.



page 80 | **Trip of Korean Music**

This issue takes you to the Gangwon Provincial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 traditional Korean orchestra and dance company that produces the national sounds of Inland Korea. Appreciate a part of its outdoor concert held at Gamyongteo in Wonju and meet the singer who recreates the traditional sounds of Gangwon Region.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Red Papaya Black Tea, the lovely black tea that blends the sweet peach flavor with red rose hips, papaya and rose. Experience our Korean ancestors' tea time when they pondered on tea, people and their spirits over a cup of tea.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8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7월 31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미안피니셔, 뮤지컬 <잭 더 리퍼>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3년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여 피부의 생(生) 윤기를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녹차와 함께 발효시킨 홍삼 성분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하루 종일 생기 있는 피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잭 더 리퍼> 관람권(8명)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스타일 뮤지컬 <잭 더 리퍼>의 공연 관람권 8장(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8월 중에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디큐브아트센터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 한지영 대전 동구 판암동
- 정영사 충남 천안시 두정동
- 박종섭 광주 동구 산수동
- 진정숙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 배병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관람권(6명)

- 강경화 서울 노원구 하계2동
- 문은미 인천 부평구 산곡4동
- 이복주 서울 은평구 진관동
- 김영숙 강원 춘천시 금강로
- 황은정 서울 강서구 방화3동
- 홍인순 충남 당진시 읍내동

★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